불교총지종
총지종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불교 종단입니다.

총지종보

2006년 11월 1일
월 간 발 행
www.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구독문의 02-552-1080
The chongji news
불기 2550년 음력 9월 11일 제84호

"정보화시대 온라인 포교활성화"

총지종 홈페이지 11월 중순 새단장

◇온라인상의 포교를 담당할 총지종 홈페이지.

총지종은 11월 중순부터 단장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정보화시대 온라인 포교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그동안 총지종은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관리하여 왔지만 급변하는 정보화의 물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홈페이지 개편에 대한 지적이 대두되어 왔다.

이번에 새로 개편된 홈페이지는 현시대의 흐름에 적합한 패턴과 양식을 구비하였으며, 각종 행사의 동영상과 법문, 총지종 소개, 각 기관별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특히 메인화면에는 총지종의 불단을 주 화면으로 설치하고 공지사항과 최근 총지종 소식을 전달함으로써 종단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온라인상을 통해 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총지종 수행법을 전달하는 공간을 마련하였고, 신행상담을 통해 일상생활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상담할 수 있게 된다.

총지종 홈페이지를 제작한 마하넷 전통문화 홈페이지 이계복 사장은 "전통과 현대의 감각을 접목하여 불교의 고유성을 살리면서 현대인들의 시각에 적합한 양식을 추구하였으며, 동영상을 활용하여 생동감있게 종단을 홍보하고, 간단 명료하게 종단을 알릴 수 있도록 디자인 하였으며, 특히 시각적으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복잡한 글 구성보다 시각적 효과를 위한 사진자료를 많이 사용하여 고풍스럽고 시대감각에 알맞게 제작하였다."고 밝혔다.

"진언밀법으로 중생구제"

11월 23일, 덕화사 헌공불사

총지종 부산 덕화사(주교 대원)는 오는 11월 23일 덕화사 서원당에서 효강 종령예하를 비롯하여 종단의 스승과 교도, 사부대중을 모시고 헌공불사(낙성식)를 봉행한다.

덕화사는 지난해 11월 20일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고통과 번뇌로 쌓인 일체 중생을 해탈의 부처님 세계로 인도하는 태동을 알렸으며, 총지종 유일의 전통양식인 외부단청과 아자관, 만다라를 봉안하여 새로운 사원건축 양식의 한 획을 그었다.

덕화사는 2004년 12월초 부산시 덕천동에 대지 296평, 연건평 343평, 지하1층과 지상3층으로 시공업체인 연흥건설이 착공하여 공사기간 1년만에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2005년 11월 완공하였으며, 건축문화를 창조하는 건축양식을 개발하여 편리성과 장엄성을 고려하여 건축하였다 또한 불단장엄과 외부단청으로 총지종 건축양식의 일대변화를 이루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덕화사는 부산의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많은 대중들이 왕래하는 곳으로 많은 사부대중들이 밀법도량을 방문하여 자신의 업장소멸과 소원성취를 발원하는 법회를 올리고 있으며, 진언밀법홍포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헌공불사를 준비하고 있는 덕화사 교도는 "덕화사 교도들은 웅장하고 도량다운 부처님의 전법도량에서 종단의 스승과 교도, 사부대중들을 모시고 헌공불사를 봉행하게 되어 감개가 무량하하다."며 그동안 우리 교도들은 가정집의 조그마한 법당에서 앉을 자리가 없어서 서서 법회를 보고, 사원이 초라하여 친척들이나 친구들을 절에 데려오기가 거북하였는데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자랑할 수 있게 되어 무엇보다 기쁘다."며 "이와같이 아름답고 웅장한 전당을 우리에게 선사하여 주신 부처님과 종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덕화사 전경

"종단중흥, 불사법요 개정논의"

제68회 추계강공 원만회향

총지종은 지난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서울 통리원에서 전국 스승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68회 추계강공회를 개최하여 종단의 현황을 조명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추계강공회는 원의회, 사회복지재단 이사회, 종의회, 승단총회로 이루어졌다.

개강불사에서 효강 종령예하는 "종단 중흥을 위해 다양한 방편들을 개발해야 한다. 시대변화에 적합한 교화방편 마련을 위해 매달 종단중흥 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하고 시행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앞으로 승단은 청정한 계율과 수행으로 수행자다운 모습을 갖추어야 하며, 승직자로서 타의 모범적인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며 "원정 대성사님께서 창종하신 총지종이 발전하는 길만이 원정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다."며 "모두가 구태의연한 자세를 버리고 새로운 각오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원의회와 종의회에서는 총기 35년도 추가경정예산과 총기36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하였다.

전 스승들이 참석하는 승단총회에서는 전국 사원사무지도 감사시에 지적된 사항보고, 수인사 신축현황 설명, 교도들을 위한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위한 예산책정, 양산과 김해의 신개지 개척, 초상시 사용될 장의용 번과 조기 제작 배포, 스승으로 양성할 인재육성,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그동안 종단 불사의식의 단조로움과 의식의 통일성에 대한 지적과 관련해 불사법요위원회에서 제시된 진택불사법요와 영식천도법요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조만간 개정안을 마련하여 발표하기로 하였다.

특히 전국사원의 만다라 봉안에 있어 각 사원별로 여건에 맞추어 봉안하도록 하였으며, 불단장엄에 대해 차후 논의하기로 하였다.

총지캠페인

가난한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마이크로 크레디트 제도

1972년 미국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가난한 자신의 조국 방글라데시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던 중 우연히 조그만 시골마을에서 굶기를 밥 먹듯이 하는 마을 주민 42명에게 자신의 주머니에 있던 27달러를 나누어주며 "돈을 벌면 갚아라."고 했다. 돈을 빌린 주민은 그 돈을 종자돈으로 하여 돈을 벌었고 그러자 빌린 돈부터 갚으러 왔다.

이것은 기적의 시작이었다. 그는 그 후 직원 18,151명에 2,185개의 지점을 운영하며 아프가니스탄, 카메룬 등 저개발 국가는 물론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의 프랑스 등 선진국까지 전 세계 37개국으로 퍼져나가 9,200만명의 빈민들에게 소액대출을 해주는 빈민을 위한 그라민은행을 설립한 무하마드 유누스가 올해의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다.

그라민은행의 총재 유누스는 마이크로 크레디트(Micro Credit) 운동의 창시자다. 마이크로 크레디트란 담보나 보증부족으로 제도권 금융기관의 문턱도 넘을 수 없는 빈민층이나 영세 자영업자에게 무담보로 소액의 자금을 신용대출 해주는 제도다. 소득이든, 신분의 계층이건 개의치 않고 창업, 가게운영, 생활자금 등을 대출해주는 금융 인프라인 것이다.

더욱이 그라민 은행은 대출 회수율이 98%나 된다는 놀라운 사실. 이는 돈을 떼일 위험성이 2%도 안된다는 얘기로, 우리나라 은행들은 물론 세계 정상급 은행들도 보다도 낮은 세계 최고 수준의 회수율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양극화와, IMF사태 후 엄격해진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 규제 등으로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권에서 쫓겨나면서 살인적 사채 및 고리대를 이용하다가 가족 전체가 붕괴하는 등 그 어떤 나라보다 '마이크로크레디트'의 도입이 시급한 국가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돈 있는 부자들만을 위한 은행보다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저소득층에게 희망이 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그라민은행 같은 금융기관이 꼭 필요한 때가 요즘이 아닌가 싶다.

이 달의 종조법설

화와 복이 다 인연에 있는 것이고, 친소도 또한 인연에 있는 것이다. 복도 홀로 안되는 것이고, 화도 능히 홀로 안되는 까닭이다. 성긴 것이 도리어 친해지고 화가 도리어 복이 되는 것을 볼 때 모두가 연을 짓는데에 있는 것이다. 육행이 다 이에 있는 것이다. 대업이 성취하는 것도 다 이에 있는 것이고, 열반 저 언덕도 또한 여기에 있느니라.

봉 덕화사 헌공불사 축

부산 덕화사는 법신대일여래 비로자나부처님의 무언 설법을 통하여 마음의 비밀을 깨달음으로써 즉신성불에 이르게 하는 정통밀교의 숭고한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헌공불사를 봉행하오니 공사다망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총기35년 11월 23일(목) 오후 3시
• 장 소 : 부산 덕화사
• 대 상 : 사부대중
• 연락처 : 부산시 북구 덕천2동 325-2 ☎ 051-332-8903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우 승

사설

상조회 활동으로 포교활성화

최근 통계자료를 보면 카톨릭 신도수가 증가하고 있는 주요 원인중의 하나는 상조회의 구성으로 성당의 신부와 교우들이 밤낮으로 빈소를 지키며 고인의 명복을 비는 봉사활동과 고인을 위한 납골시설을 마련하여 봉안하게 함으로써 신도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불교계의 신흥사찰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도 사찰별로 신도회가 구성되어 불우교도가정 위로방문, 상조회 활동, 신도경조사 참석 등 구역별, 지역별로 신도들을 관리한 결과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카톨릭은 상조회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성모병원을 중심으로 병원에서부터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돌보는 호스피스 활동, 임종시 모든 장례업무를 처리하는 원스탑 장례도우미 서비스, 카톨릭 납골시설 봉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복지활동과 장례문화의 개발은 일반인들이 호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며 종교를 개종하게 한다.

불교계에서는 서울 도심사찰 및 각 사찰 봉사회 등 주요 신행단체에 구성된 지장회, 염불회 등을 중심으로 상조회가 조직돼 있다. 이들은 주로 장례기간 동안 지속적인 방문과 독경으로 포교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서울 능인선원의 '능인상조회'는 매 불교대학 기수 중 6개월 후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장례 발생시 상조회장이 해당 기별 연락을 통해 상조회원을 동원하며 하루 3~4차례 방문해 염불봉사를 2시간씩 한다.

특히 장례절차, 문상객접대 등 필요한 모든 절차를 도와주며, 상조회 정회원에게는 납골당인 영묘전 분양 우선권을 주고 있다.

이 외에도 서울 구룡사, 대구 영남불교대학관음사, 인천 영산정사, 부산불교복지상조회, 대구지장불교상조개발, 대전아미타상조회, 청주연화불교상조회 등 사찰 및 불교단체에 상조회가 조직돼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은 타종교와 비교할 때 아주 미약하다.

상조회 활동은 신도관리 체계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포교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상조회의 활동에 의한 봉사활동은 가족과 친인척 뿐 만아니라 일반인들에게 종교에 대한 거부감을 제거하고, 긍정적인 반응과 호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신도회 조직과 활성화, 상조회 활동은 포교활성화를 이룩하는 중요한 요소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불교계에서 상조회 활동이 저조한 것은 투명하지 못한 재정문제와 종단 차원의 물질적 지원 부족, 일선사원 스님들의 인식부족, 통일된 의식교육과 봉사자들에 대한 교육부재를 들 수 있다.

종단에서는 우선 장례의식과 관련된 다양한 법구를 사용하여 대중들의 신심을 유발하고, 망자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기에 충분한 불공법을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장중한 불공법을 활용하여 각 사원 주교는 사원별 신정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상조회를 구성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이들을 잘 활용하면 타 종교 못지않은 훌륭한 상조회 활동으로 포교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급변하는 현시대에 관혼상제에 대한 의식과 제례도 간편하고 편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흘러가는 시대의 물결에 적합한 교화방편의 개발로 시대에 부응한 종교관과 포교관을 정립해야 한다.

"인류 공생을 위하여"

제9차 한 · 중 · 일 불교교류 대회 성료

◇교육원장 화령정사가 학술발표를 하고 있다.

제9차 한·중·일 불교교류대회가 지난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일본 입정교성회 경도회관에서 우승 총지종 통리원장을 비롯하여 한국. 중국. 일본 대표단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이번 대회는 한중일 대표단으로 구성된 불교우호교류위원회를 개최하여 행사의 일정과 방향을 결정하였으며, 한중일 교류대회 10주년 기념사업 논의, 평화, 환경, 인권, 문화, 생명존중, 국제청소년교류 등 주요분야 상설분과위원회 설치를 제안, 상호국가간의 우호 교류 방안을 협의하였다.

학술세미나에서는 '인류의 공생을 위하여'라는 주제, 종교간의 대화를 위한 삼국불교의 역할이란 부제로 각 국가별 3명씩 발표하였다.

특히 총지종 교육원장인 화령정사는 '동양 삼국의 평화적 가교로서의 불교도의 역할'이란 주제로 학술발표를 함으로써 총지종의 위상을 삼국에 과시하였다.

또한 삼국의 대표단은 일본 나라 약사사에서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법회를 봉행하여 세계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였으며, 현안문제인 비핵화를 주장하는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삼국의 대표단은 대회를 마친 후 교토와 나라지역의 주요 총본산과 사찰인 지은원, 청수사, 법륭사, 동대사, 영산사, 선통사, 석수사 등을 방문하였다.

제9차 한. 중. 일 불교교류대회는 삼국불교의 유대를 공고히 하고 동북아 불교문화의 발전을 지속시키며,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한편 총지종에서는 우승 통리원장을 비롯하여 법공 정사, 원송 정사, 화령 정사, 선도원 전수, 시정 정사, 김민호 교무, 장동욱 교무가 참석하여 총지종을 포교하였다.

알림방

- 부산 덕화사 헌공불사가 11월 23일 덕화사에서 봉행됩니다.
- 승단총회를 11월 28~29일 통리원에서 개최합니다.
- 통리원 유호걸교무 결혼식이 11월 11일 서울 용산 마이웨딩홀에서 12시에 열립니다.
- 통리원 안도영교무 결혼식이 11월 18일 서울 잠실 교통회관웨딩홀에서 오후 5시 30분에 열립니다.

"지역 아동들의 한마당"

정각사 바라밀 공부방 연합체육대회

◇정각사 바라밀 공부방학생들이 행사에 동참하고 있다.

정각사 바라밀 공부방은 지난 10월 28일 경상대학 운동장에서 '친구야 함께 가자'라는 주제로 열린 동래구 연합체육대회에 참가하여 협동심과 멤버십을 고양하였다.

연합체육대회는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10개의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각 학년별 100m 달리기, 바구니에 공넣기, 개인별 줄넘기, 팀별 공 넘기기, 팀별 줄다리기, 팀별 릴레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연합체육대회는 지역 기관과 기업들의 후원과 각지역 실무자 및 자원봉사단 50여명이 자원봉사자로 참가하여 훈훈한 정을 나누었다.

체육대회에 참가한 바라밀 공부방 아동은 "따뜻한 가을햇살을 받으며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신 관계자와 공부방 관장님과 선생님께 감사드린다."며 "따뜻한 정으로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 착하고 튼튼한 어린이가 되겠다."고 말했다.

세상사는 이야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어머님!

우리집에는 탁상용 거울이 하나 있다. 갸름한 얼굴에 두 발은 둥근 단에 살짝 얹혀서 젊었을 때의 고운 자태를 아직도 조금은 간직하고 있다.

우리 집에 오기 전에는 어머님(복지화 전수님) 방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지금은 낡고 볼품없고 군데군데 녹 자국도 많이 남아 있다.

거울 면은 부옇게 흐려져 있어 보통 거울이라면 거울로서의 운명을 다 한지도 아주 오래 되었으리라 짐작한다.

이 거울은 내가 시집 왔을 때 이미 어머님 방을 지키고 있었다. 어머님께서는 항상 이 거울 앞에서 로션도 바르시고 머리도 곱게 빗으셨다.

우리 집에 온 후로 나도 이 거울 앞에서 화장도 하고 옷 매무새도 정리한다. 이 거울을 보며 거울에 비친 어머님 얼굴을 늘 떠올린다.

어머님께서는 이 거울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어떤 표정을 지으셨을까?

어머님께서는 이 거울을 보시면서 부처님의 인자하신 모습과 여러 보살님들을 생각하시지 않으셨을까?

오늘도 생각에 잠겨 옛날로 돌아간다.

어머님께서는 늘 그곳에 계시면서 언제나 환한 얼굴로 맞이해 주시는 분이셨다.

괴산에 계실때에는 그곳이 좋아서 나도 아이들 다 크면 그곳에 가서 어머님과 함께 같이 살리라 생각했었다.

세월이 기다려 주지 않는 다는 것을 그때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이 거울은 어머님과 나를 끊임없이 연결해주는 것으로 그 어떤 보물보다 소중한 것이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후 어머님 방에는 쓰시던 우산과 거울만 썰렁하게 남아 있었다. 유품은 보살님들께서 하나씩 둘씩 가져 가셨다. 어머님을 기리는 마음에서 .....

재빨리 남은 거울과 우산을 집으로 가져 왔다. 이때부터 거울과 나와의 인연은 시작되었다. 그 후로 어머님 손길이 닿았던 이 거울을 안방에 두고 하루에도 몇 차례씩 들여다 보며 산다.

마침 내가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는 전시관에서 심화교육이 있었다. 교수님께서 사연이 있는 여성생활용품을 수집해서 사연과 함께 간직한 이야기를 발표하는 시간을 주셨다.

나는 주저없이 이 거울을 가지고 가서 수강생들 앞에서 거울이 간직한 이야기를 했다. 물론 거울은 볼품없는 일상적인 것이었지만 거기에 담긴 이야기는 감동적이었다는 평을 받았다.

이번 기회에 새삼스럽게 내가 어머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했었나를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어머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도 얼마나 깊었나를 깨닫게 되었다.

지난날의 여러 가지 후회되는 일이 끊임없이 스쳐 지나갔다. 표현이 부족한 나는 어머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는지를 마음속으로만 간직하고 있었다.

"어머님! 지금도 거울을 보며 어머님 생각을 합니다. 어머님께서 늘 당부하셨던 '절에 다니고 불공 열심히 해라'는 말씀 꼭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저는 제 일생에서 어머님을 만난 것을 최고의 행운이며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머님을 통해서 부처님을 만난 것도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님! 저에게 소중한 것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우리 모두 부처님의 참사랑을 어려운 이웃과 나눠요

2006년 9월 28일부터 2006년 10월 27일까지

개천사	이희권	9.28	10,000
개천사	무명씨	10.12	5,000
개천사	김수향	10.19	10,000
개천사	전상훈	10.19	10,000
개천사	이희권	10.27	10,000
관성사	황성녀	9.27	10,000
관성사	이혜원	10. 2	5,000
관성사	전추면	10.12	10,000
관성사	황성녀	10.26	10,000
기로원	총지화	10.18	50,000
기로원	상지화	10.23	10,000
기로원	불멸심	10.23	10,000
기로원	법장화	10.23	10,000
기로원	대자행	10.23	10,000
기로원	대 관	10.23	10,000
기로원	수증원	10.23	10,000
기로원	자선화	10.23	10,000
단음사	유가해	10.26	10,000
단음사	안 성	10.26	10,000
단향사	공철봉	9.27	5,000
단향사	행원심	10.12	20,000
만보사	지 성	10. 9	10,000
만보사	승효제	10. 9	10,000
만보사	배정임	10.13	10,000
만보사	정덕순	10.23	5,000
밀인사	무명씨	9.28	10,000
밀인사	정정희	10.2	5,000
밀인사	이재호	10. 9	10,000
밀인사	신대식	10.24	5,000
밀인사	이혜성	10.24	5,000
밀인사	신동희	10.24	5,000
밀인사	신동의	10.24	5,000
밀인사	이재호	10.26	10,000
밀인사	이연수	10.27	10,000
밀행사	서상교	8.30	100,000
밀행사	서상교	10.4	100,000
백월사	이갑진	8.30	10,000
백월사	이갑진	9.29	10,000
백월사	황혜숙	10.12	10,000
백월사	류승태	10.26	10,000
백월사	법 우	10.26	10,000
백월사	인지심	10.26	10,000
법천사	임선순	10.11	30,000
법천사	임선순	10.18	10,000
벽룡사	이희숙	9.28	10,000
벽룡사	원 당	10.24	10,000
벽룡사	묘심해	10.24	10,000
벽룡사	이희숙	10.25	10,000
벽룡사	이재갑	10.26	10,000
삼밀사	원각정	10. 2	10,000
삼밀사	원 송	10. 9	10,000
선립사	대 덕	9.27	10,000
선립사	정복지	10.13	10,000
선립사	심지장	10.13	10,000
선립사	대 덕	10.18	10,000
선립사	윤봉선	10.19	10,000
선립사	이순복	10.23	10,000
수인사	한애숙	9.28	20,000
수인사	김봉기	9.28	10,000
수인사	오금연	10.26	50,000
실보사	이순옥	9.29	5,000
실보사	무명씨	10.17	5,000
실보사	이수임	10.18	9,000
실지사	정경자	9.27	5,000
실지사	박병성	9.27	5,000
실지사	이화수	9.28	10,000
실지사	정우석	9.29	30,000
실지사	정연수	10.2	5,000
실지사	무명씨	10.18	7,000
실지사	박병성	10.27	5,000
정각사	윤선자	9.28	10,000
정각사	신옥철	9.28	5,000
정각사	김점남	9.28	10,000
정각사	박말연	10.2	5,000
정각사	남숙자	10. 9	20,000
정각사	김문수	10.11	10,000
정각사	혜정심	10.12	5,000
정각사	박춘휘	10.13	10,000
정각사	이란이	10.17	10,000
정각사	구정희	10.23	20,000
정각사	김점남	10.26	10,000
정각사	최분순	10.27	60,000
정심사	박옥란	10.16	20,000
정심사	오윤보	10.23	5,000
지인사	이현진	9.28	10,000
지인사	전문희	9.28	10,000
진관사		10.25	10,000
총지사	이인성	10.16	30,000
총지사	박묘정	10.16	10,000
총지사	박정희	10.16	10,000
총지사	박상영	10.18	10,000
통리원	지 정	10.23	20,000
혜정사	혜원정	10. 9	10,000
혜정사	서 령	10. 9	10,000
혜정사	오혜민	10. 9	10,000
흥국사	강한빛	9.28	20,000
	강순란	10.10	5,000
	임지자	10.19	30,000
	정희연	10.20	10,000
	최순전	10.20	50,000
	무명씨	9.28	10,000
	무명씨	10.12	30,000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의 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원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552-1083, 3452-74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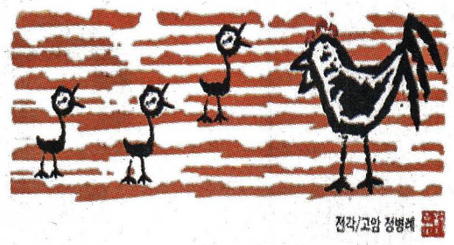
풍경소리

화합을 일구는 배려

자이나교도인 사하 장군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장군은 부처님에게
자신을 제자로 받아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사하장군, 다시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신처럼 명망있는 사람은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장군은 놀랐습니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깃발을 들고 시내를 돌아다니며 자신의 개종사실을
선전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깊고 진실한 존경심으로 뜻을 굽히지 않는 장군을 부처님은
조건부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하장군,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이나교 교단에 보시하고
자이나교 수행승들에게 공양해야 하오."

박경준/동국대 교수

걸어서 갈께요



어느 봄 날, 연못가에서 병아리가 울고 있습니다.
오리가 병아리를 위로하며 시범을 보입니다.
"이렇게 헤엄을 쳐서 엄마한데 가 보렴"
다음엔 토끼가 나타나서 거듭니다.
"나처럼 뛰어서 가보렴"
꿀벌은 또 '웅' 하고 날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뛸 수도, 날 수도, 헤엄도 칠 수 없는 병아리였습니다.
낙담이 된 병아리는 탄식의 외마디 소리를 지릅니다.
건너편의 어미닭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아가야 왜 그러니?"
"나, 엄마한데 가고 싶어서...."
"아가야! 연못 둘레를 천천히 걸어서 오려무나."

맹란자/수필가

이달의 명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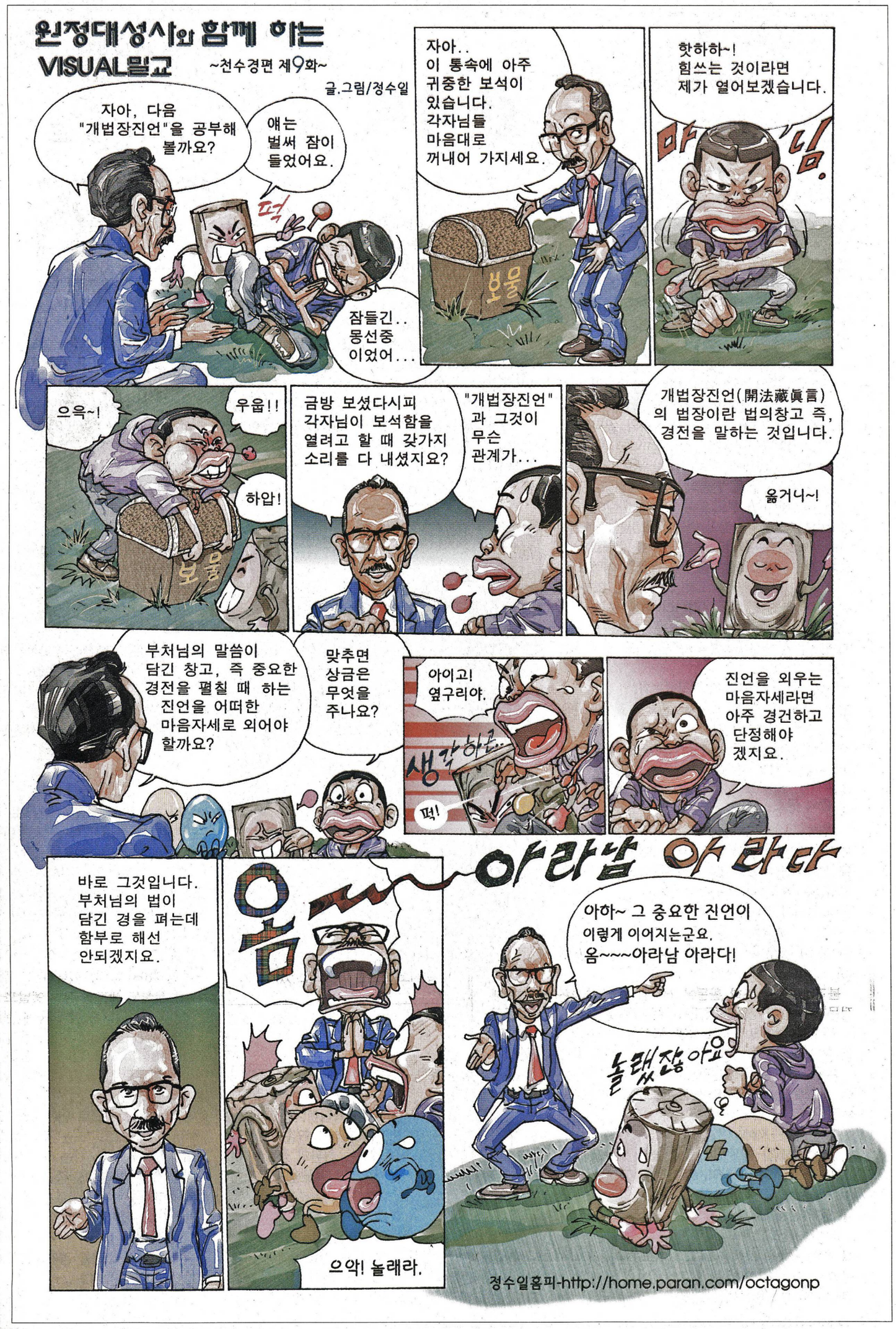
무엇을 일러 '나'라고 할 것인가?

칭가발타는 장자의 아들로서 본래는 큰 부자로 살다가 빈궁해졌다.
그러자 주위의 친척들이 모두 깔보고 사람으로 대접해 주지 않아 그는 마음이 늘 우울하고 괴로웠다. 그러다가 그는 장사하는 친구들과 함께 먼 나라에 가 무역을 해서 많은 돈을 벌어 자기 나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러자 예전에는 못 본 척하고 깔보던 친척들이 제각기 음식과 향,꽃,음악을 베풀며 먼 곳까지 나와 맞이하였다.

칭가발타는 일부러 허름하고 거친 옷을 입고 동행하는 사람들 앞에서 걸어갔다. 이에 친척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물었다. "칭가발타는 지금 어디에 있소" 칭가발타는 곧 대답했다. "칭가발타는 뒤에 있을 것이요" 친척들은 뒤에 가서 일행들에게 다시 물었다.
"칭가발타가 누구요?"그들은 대답했다. "앞에 허름한 옷을 입고 가는 분이 바로 칭가발타요" 친척들은 앞으로 나아가 말하였다. "그대가 바로 칭가발타이면서 어찌하여 '뒤에 있다'고 말하였는가?" 이에 칭가발타는 친척들에게 대답하였다. "내 몸이 칭가발타가 아니고, 저 낙타의 등에 실은 재물이 바로 나요. 왜냐하면 지난날 내가 곤궁할 때에는 나에게 아예 말도 걸지 않더니. 이제 내가 재물이 많아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융숭하게 맞이해 주니, 저 낙타의 등위에 실려있는 재물이 바로 내가 아니겠소"
우리가 이웃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사람을 우러러 칭찬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몸이나 얼굴을 보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선행과 봉사를 기리는 것이다.
자신의 용모에 의해서 평가받고 대접받으려 하기보다는 스스로 실천한 착한 행동과 열심히 노력한 결과에 따라 평가받는다는 현실을 새삼 깨우쳐 주는 가르침이다.

원정대성사와 함께 하는 VISUAL밀교 ~천수경편 제9화~

글.그림/정수일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 재단은 부처님의 자비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설립취지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사회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각종 사회복지 사업을 펼치고 이를 통해 소외된 계층과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의 공덕'을 실천하여 안정된 사회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자 설립되었다.

주요사업내용

청소년복지사업

- 건강한 청소년 육성사업
- 청소년 문제 연구 및 상담사업
- 청소년 문화교실 운영
- 청소년 건강 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 캠프

지역복지사업

- 지역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사업
- 지역내 소년 · 소녀 가장 후원 결연사업
- 지역내 독거 노인 후원 결연사업
- 생활보호 대상자 후원 사업

자원봉사 및 후원회 사업

- 자원봉사자 상담 및 교육
- 자원봉사 지원 및 운영
- 후원자 개발 및 관리
- 자원봉사 교실 운영

노인 휴양시설 건립 추진

- 아름다운 노후생활
- 안정되고 체계적인 노후보장
- 납골당 건립 추진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성은 재단의 사회복지 사업에 소중하게 쓰여집니다.

회 원

일반회원 - 월 5천원(1구좌) 이상
찬조회원 - 일정금액 후원
단체회원 - 단체명으로 월 5만원 이상
특별회원 - 50만원 이상 후원

후원금 납입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 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지로 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 지로번호 : 7668610
   -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 예 금 주 :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한국불교미술

한국의 범종

1. 범종의 의의

종은 일반적으로 사찰이나 성의 문루에서 시간을 알리거나 사람을 모이게 하는 데 사용하였다. 범종은 사찰에서만 제작되어 여러 가지 불교 행사, 의식을 행할 때 사용했는데, 신앙적인 의미로는 인간이 번뇌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 종은 동양에서 만들어진 종이라 해도 중국 종이나 일본 종과는 달리 학명으로 '한국 종'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 이유는 신라의 '만파식적'에서 유래되었다는 음통을 지니고 있는 독자적인 양식을 구축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 범종의 상당수가 일본으로 반출되었는데 현재 일본에서 국보로 지정된 것만 해도 20여 구를 헤아린다.

우리나라의 종과 서양의 종을 비교하면 형태면에서 우리나라 종은 항아리를 거꾸로 한 형태로 바깥쪽에서 치는 반면, 서양 종은 나팔꽃을 거꾸로 한 형태로 종의 내부에서 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종을 매달아 놓는 장소도 우리나라 종은 종각(종루)에 매달아 놓는 반면, 서양의 종은 높은 종탑에 매달아 놓고 줄을 잡아당겨 종을 움직이게 하여 소리를 낸다.

범종은 언제부터 만들기 시작했는가?

현재 전해지고 있는 범종을 통해서 볼 때 통일신라 전기부터 범종이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대표적인 예로 상원사 동종과 성덕대왕 신종을 들 수 있다.

2. 범종의 구조

1) 용뉴

용뉴는 용의 모양을 하고 있는 범종의 가장 윗부분인데 용뉴의 모양으로 범종을 어느 때 만들었는지를 알 수 있다.

신라 중대(신라의 민족 통일 이후)

- 한 마리 포뢰용이 종면에 몸을 굳게 밀착, 종을 물어 올리듯이 종 머리에 입을 붙이고, 두발로 앞뒤를 굳게 버티고 있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다.

- 에밀레종으로 알려진 성덕대왕 신종을 보면 한 마리의 포뢰용이 종면의 천판에 굳게 밀착하여 종 머리에 입을 붙이고 꼬리가 천판에 붙어 있으며, 튼튼한 두발을 앞뒤로 굳게 버티어 범종을 물어 올리려는 형상으로 미혹(迷惑)에 빠져 있는 중생을 부처의 세계로 끌어올리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신라 하대 ~ 고려

-다소 빈약해진 몸매이며 등을 높이 세우고 오른다리는 옆으로 뻗어 기역자로 구부리고 왼다리는 위로 꺽어 올려서 여의주를 희롱하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힘이 없는 느낌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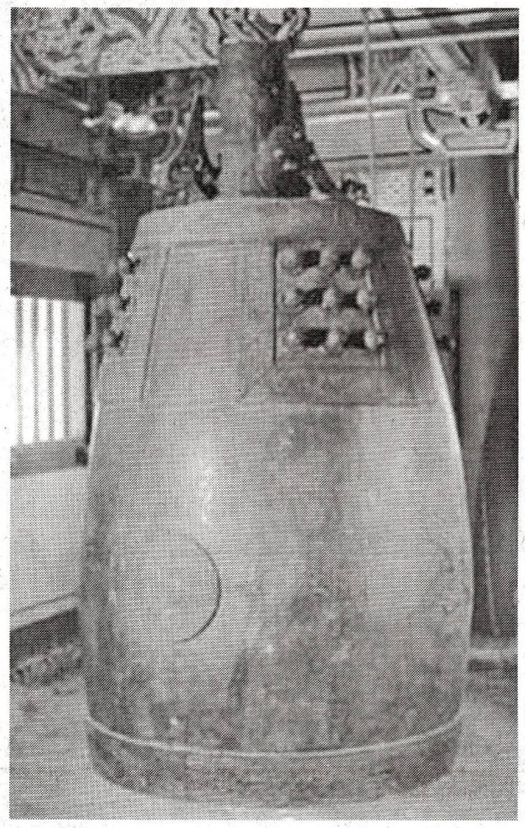
용머리는 들리고 턱의 앞쪽 끝만이 살짝 종 머리에 닿을듯 말듯한 자세를 하고 있기도 하다.

조선 초기 ~ 선조

-두 마리의 포뢰용으로 얼굴을 밖으로 돌린 채 같이 붙어 엉킨 몸뚱이를 솟구쳐 고리를 형성하고 전체적인 느낌이 둔하고 무딘 생김새로 철저하게 라마교 범종 형태를 수용한 듯 보여진다.

음관

음관(音管)은 음통(音筒) 또는 용통(甬筒)이라고도 한다. 음관은 종을 쳤을 때 잡소리 없이 한 가닥 맑은 소리를 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즉 뒤울림이 명주실같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게 하는 신비로움이 스며있다. 형태는 대나무 마디 모양을 뚜렷이 보인다. 외국종에는 없는 '한국종(韓國鐘)'의 특징이다. 신라 ~ 고려시대에는 음관이 하나이었으나 조선 초기 이후 음관이 없어져 주체를 잃어버린 중국의 종을 모방하는 인상을 준다.



천판

천판(天板)은 용뉴, 음관과 접촉되어 있는 종머리 부분으로 신라시대의 범종에서는 가장자리 안쪽으로 연꽃잎이 볼록 새겨진 것이 특징이다. 고려시대의 범종에서는 가장자리 연꽃잎이 서있는 모습을 보인다. 조선 시대의 범종에서는 천판의 중앙이 전체적으로 솟아올라 있고 가장자리 연꽃잎의 테두리가 사라진다.

상대와 하대

상대와 하대는 종의 어깨와 종구(鐘口)에 둘러진 무늬 띠를 말한다. 상대와 하대는 북의 테두리 장식과 같은 의미로 종의 아래와 위가 잘 터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하며, 두 쪽을 두툼하게 마감하여 굵은 울림소리가 나도록 하는 배려이기도 하다. 상대와 하대로도 범종의 제작시기를 알 수 있다. 신라시대에는 당초무늬, 보상화무늬를 주로 새겼다.

고려시대에는 번개무늬, 국화무늬를 새겼다. 조선시대에는 상대는 연꽃무늬(復蓮), 하대는 자체가 몸통 위쪽으로 솟았으며 물결무늬, 상대와 하대 사이에 세 줄의 줄띠를 했다.

비천상(飛天像)과 불보살상(佛菩薩像)

신라 - 대부분의 신라종에서 비천상이 발견된다. 좁고 길다란 천의를 너울거리며, 연꽃 방석 위에 무릎을 꿇거나 꼬리가 긴 꽃구름을 타고 푸른 하늘에 떠서 악기를 다루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

고려 - 꼬리구름 위에 놓인 연꽃자리에 앉은 부처나 보살상

조선 - 거의 대부분 연꽃 위에 꼿꼿이 선 채로 합장한 보살이 유곽 사이까지 올라가서 4곳에 배치됨(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당좌

당좌(撞座)는 종을 치는 당목이 직접 닿는 부분으로 가장 좋은 소리를 얻을 수 있는 자리는 종구의 밑에서 ⅓정도(대부분의 신라종이 이에 해당)이다.

당좌의 위치와 무늬로도 시대를 구분할 수가 있다.

몸매

신라 - 늘씬하게 길며, 밑으로 갈수록 천천히 배가 부르다가 ⅔ 정도에 와서는 안쪽으로 살짝 들어간다.

고려 - 전체적으로 길이가 짧아져 종의 밑인 종구의 지름과 키가 거의 비례하며, 밑으로 갈수록 차츰 배가 부르다가 배부른 모습이 거의 직선을 이루고 있다.

조선 - 위에서부터 펑퍼짐하게 선을 그리면서 내려오다 끝부분에 와서는 밖으로 벌어진다.

용두(龍頭)

용수(龍首)라고도 합니다. 범종(梵鍾)의 위에 용머리 모양으로 된 꼭지, 여기에 갈구리를 매어 종을 달아 놓습니다.

이것을 용 모양으로 만든 것은 잘못이고, 포뇌수(蒲牢獸)모양으로 만드는 것이 옳다고 한다.

포뇌는 바닷가에 사는 짐승으로 성품이 고래를 무서워 하고 소리는 범종과 같으므로 포뇌의 모양을 만들어 종 위에 붙이고 ,

방망이를 고래 모양으로 만들어야 종이 반드시 울린다고 하는 것. ...

후세에 범종 소리를 경음(鯨音)이라 부르는 것도 여기서 생긴 것입니다.

총지동의보감

갱년기의 심리적 변화

김장규 원장

중년기는 일반적으로 40세에서 65세로 보면된다. 그러나 이 중년기는 남녀 성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취급받는다. 남자에서는 변화가 늘 조금씩 계속하여 있으므로 자타 모두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여자의 경우는 남자에 비해서 좀 완연하게 변화가 나타나므로 40세 이후를 딱 부러지게 잡으려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중년기는 사회계급에 따라서 오는 시기가 다르다. 즉 상류층 사람에서는 중년기 변화가 늦게 오는데, 대개 지식층의 중년기는 40대에 시작한다. 이에 비해 육체노동을 주로하는 계층에서는 일찍 오는데, 농사 짓는 집의 여성의 경우 40세면 대개 고물취급을 받는다. 중년기에 접어든 사람은 대개 다음과 같은 심리적 특징을 보인다.

첫째, 젊은이와의 거리감을 느낀다. 전에는 자기도 위만 보고 지냈는데 이제 보니 어느 사이에 젊은 사람들과는 감정적, 사회적, 문화적 면에서 큰 거리가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둘째, 이 나이가 되면 여성은 아이 양육의 부담에서 벗어나고, 과거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위치에서 적극적이고 자기주장이 강해져서 가정 내에서도 발언권이 강해지는 경우가 많다. 교육을 받은 여성의 경우는 자식의 교육걱정을 끝내 놓고는 자유스럽다는 느낌이 들어 못다한 재능을 발굴한다든지 아니면 부직을 찾아 나선다.

셋째,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쓴다. 테니스, 조깅, 등산을 시작하기도 하고, 남편의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며, 좋다는 보약, 보신을 묻고 다닌다.

넷째, 공들여 키운 자식들은 모두 결혼, 직장, 학업으로 집을 떠나니 텅 빈 집에 홀로 남은 어머니는 마치 빈 둥우리에 앉아 있는 어미새 같은 허전한 마음과 인생무상감을 느끼는데 이를 "빈 새 둥우리 증후군"이라고 한다.

폐경기가 오면, 3/4의 여성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는다. 체내 내분비계의 변화에 따르는 일시적인 이런 증상으로 우선 신체적인 면을 보면 심계항진, 피로감, 경한 두통이 흔하다. 기타 홍조, 근육통 및 관절통, 식욕부진, 손발의 저림 등이 있다. 정신적인 면으로는 허무감, 우울증, 자살생각, 불면증이 있다. 그 중 불면증은 새벽 3~4시경에 깨어 버리는 형태로 온다. 대개는 특별한 치료 없이도 넘어 가는데, 소수 여자는 심해서 초조,불안이 깃들이게 되어 마침내 갱년기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

죽비소리 자기마음 이기는 사람이 위대한 용사

아무리 비바람이 때린다 해도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뜻이 굳세어
비방과 칭찬에도 동하지 않네

깊은 못 맑고도 고요하여서
물결에도 흐리지 않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진리를 듣고
그 마음이 즐겁고 편안하여라

전쟁에서 수천의 적을 만나서
단신으로 싸워서 이기기보다
하나의 자기 마음 이기는 사람
그분이 으뜸가는 용사가 된다.

한 달에 몇천 번씩 제사를 지내
목숨이 다하도록 쉬지 않아도
오로지 일심으로 진리 생각한
잠시 동안의 공덕에 비할 수 없다

『법구경』 중에서

Visual Communication Advertising design Editorial design

기획에서
인쇄·제본까지

- 광고기획
- 홍보전단
- 카타로그
- 브로슈어
- 사 보
- 서 적 류
- 청 첩 장
- 연 하 장
- 행 가
- 행 택
- 인하BOX
- 스티커·라벨
- 카 렌 다
- 다이어리
- 샘 플 북
- 수첩(명부)
- 쇼 핑 백
- 각종봉투

사무실 / 디자인실
서울 중구 인현동 1가 124-3호
호수빌딩 3층 2호
TEL : 2277-2900
FAX : 2277-3668
H P : 018-361-9663

공 장
서울 중구 충무로 4가 140
TEL : 2266-1872
E-mail : orient-kim@hanmail.net
Web : ID-dong455667
PS-455667

광고 및 판촉물 일체
동림기획
Orient Communications

수행체험

법경정사 중국불교수행체험 중국 4대 성지 -보현보살의 도량 「아미산」을 다녀와서…②

금정(金頂)의 4대 기관(四大奇觀) - 일출(日出), 운해(雲海), 불광(佛光), 성등(聖燈)

금정에는 4가지의 기이한 경관이 있다. 첫째가 일출(日出). 금정에서의 일출은 그야말로 장관이다. 두 번째가 운해(雲海)다. 마치 구름이 바다와 같이 펼쳐진다. 365일 중에 맑은 날이 60~70일 밖에 안되므로 일출과 운해는 거의 보기가 어렵다고 한다. 볼 수 있다면 그것은 행운이다. 아니 보현보살의 가피가 아니면 보기 어렵다고 봐야 할 것이다. 사천성불교협회 비서장 굉개스님도 보지 못했다고 했다. 세 번째가 불광(佛光)이다. 부처님의 광채가 계곡에서 비추어진다는 것이다. 낮 2~4시 사이에 아미산 계곡에서 무지개같은 둥근 광채가 선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 빛을 보는 사람은 그 속에서 자기 그림자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굉개스님은 아직 보지는 못했고 노승들로부터 얘기만 들었다고 했다. 네 번째는 연등을 단 것처럼 깊은 밤 계곡 곳곳에서 불빛이 일어나는 성등(聖燈)이다. 성스러운 연등불빛이라 하여 성등(聖燈)이라 한다. 이를 만등(萬燈)이라고도 한다. 이 연등은 보현보살의 경배를 의미한다. 사람들은 이 불빛이 호랑이 눈빛이나 반딧불이 아닌가 했다지만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고 한다. 성등(聖燈)은 불광(佛光)보다 보기가 더 어렵다고 한다. 믿기지가 않는 현상들이다. 보현보살 도량임을 드러내고자 일부러 지은 것이라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의심하고보면 끝이없고,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성스럽게 받아들이고 보현보살의 행임을 믿는다면 아미산자락이 보현보살의 성지로서 내가 순례한 것으로 족한 것이란 생각이다.

보현보살이 코끼리를 목욕시킨 곳 - 세상지(洗象池)

'상지야월(象池夜月)'의 풍광(風光)

점심공양을 마치고 다시 걸어 내려와 케이블카로 하산했다. 아미산의 또 다른 골짜기로 향했다. 목적지는 세상지(洗象池)이다. 세상지는 해발 2070미터의 높이에 있다. 1시간30분 가량을 걸어 세상지에 도착했다. 오르고 내리는 수많은 계단. 도착할 즈음에는 다리가 후들거렸다. 운동부족임을 절실히 느꼈다. 설악산 봉정암을 다녀 오신 분들은 왠 호들갑이냐 하겠지만 왠걸 걷지않다가 갑자기 걸어대니 젊다고 배겨낼 재간이 있나.

세상지는 아미산에서 가장 낙후된 사찰이다. 깊은 산 정상에 있는 데다 사면이 가파른 절벽이라 사람들의 왕래도 드물다. 올라가면 금정이요 내려가면 선봉사, 홍춘평, 청음각이다. 내려 갈수록 형편이 나은 편이다. 그나마 관광객이나 참배객들이 다녀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상지는 올라오는 사람들이 없다. 그러니 가난할 수 밖에... 세상지는 보현보살이 세상에 화현하였을때 잠시 코끼리를 목욕시켰던 연못이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못 안에는 코끼리가 웅크리고 있는 모습의 커다란 돌이 놓여 있다. 세상지의 대표적인 전각은 미륵전, 대웅보전이다. 미륵전에는 포대화상존자, 그뒤에 위타보살이 모셔져 있고, 대웅보전에는 앞에 석가모니 삼존소불(三尊小佛), 그 뒤편에는 관세음보살상이 모셔져 있다. 앞의 석가모니와 뒤의 관세음보살. 절묘와 조화의 존상배치다.

세상지에 도착하여 우리 일행은 부감원 스님과 차담을 나누었다. 원래 세상지에는 명나라 시대 당시 정자 하나가 있었는데 청나라 때에 사찰이 건립되었다고 했다. 세상지의 유명한 풍광은 밤에 달을 보는 운치가 뛰어나고 특히 연못에 비쳐지는 달빛이라고 한다. 그 아름답기가 그지 없다 하여 '상지야월(象池夜月)'이다.

저녁공양을 마치고 세상지에서 3일째 밤을 맞았다. 숙소와 침구에서 곰팡이 냄새가 진동을 했다. 밤의 온도는 초겨울처럼 차가왔고 춥기로는 뼈 속까지 한기가 느껴졌다. 이불 하나로는 부족하여 이불 두 채를 돌돌 말아 잠을 청했다. 새우잠으로 아침을 맞으니 온몸이 욱씬거렸다. 아미산에서 3번째 맞는 아침이다. 대충 세수를 하고 죽과 빵으로 아침공양을 마친후 경내 앞 절벽으로 나갔다. 처음으로 산 능선을 제대로 볼 수 있었다. 구름이 완전히 걷히었다. 저멀리 아미산의 다른 능선이 눈에 들어왔다. 맑은 하늘과 맞닿은 산 능선, 간간히 끼인 구름과 골짜기에 드리워진 운무(雲霧), 신선이 사는 별천지가 바로 여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맑은 날씨도 잠시, 날이 밝아지면서 또다시 안개와 구름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앞이 보이질 않았다. 아미산의 날씨가 늘 이렇다.

세상지 스님들과 작별인사를 나누고 아침8시 다음 목적지인 선봉사로 향했다. 선봉사로 가는 도중 조계종의 초전지(初傳地). 그 조그마한 암자를 멀리서 볼 수 있었다. 한참을 걸어 도착한 곳은 조그만 사찰. 우선사(遇仙寺)를 만났다. 목적지 선봉사는 한참을 더 가야한다. 우선사는 한나라 때 승상 장가이가 벼슬을 그만두고 지낸 곳으로 '신선을 만난 곳'이라 하여 후대사람들이 절을 짓고 우선사라 하였다고 한다. 기념사진을 몇 장 찍고 다시 길을 재촉했다. 인적이 드문 깊은 산속에서 약초캐는 사람들을 만났다. 약초를 꺼내 보이며 맛 보란다. 쓴맛이 나고 뒷맛은 조금 단맛이 나는 약초였다. 우리나라에도 있는 것으로 소염제로 쓰이는 황련(黃蓮)이라고 했다. 아침 8시에 세상지를 떠나 목적지 선봉사에 도착한 것은 11시. 세상지에서 선봉사까지는 16㎞거리. 3시간을 걸어 도착한 곳이다. 제일 힘든 코스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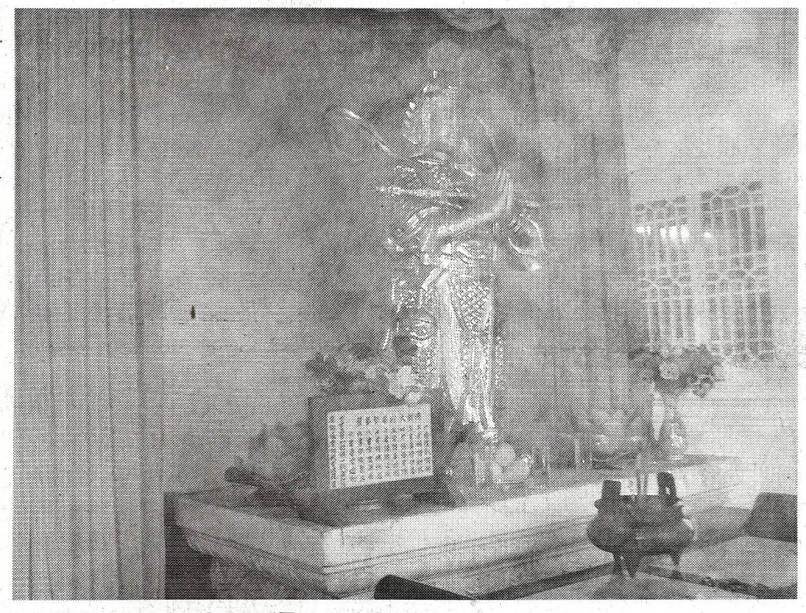
신선이 사는 봉우리 - 선봉사(仙峰寺)

해발 1752미터의 선봉사. '신선이 사는 봉우리'라 선봉사다. 기념촬영을 하고 바로 점심공양을 했다. 배가 많이 고팠다. 선봉사도 세상지와 마찬가지로 절집 살림살이가 넉넉지 못한 곳이다. 어려운 살림인데도 꽤 많은 음식을 내놓았다. 괜히 미안하다. 자기네들도 먹고살기 힘드는데... 이 음식들을 준비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산아래에서부터 짊어지고 올라왔을까. 공양을 마치고 경내를 둘러보았다. 선봉사의 전각으로는 재신전(財神殿), 대웅보전(大雄寶殿)이 전부다. 재신전은 정면에 사나운 모습의 재신(財神). 그 뒤편에 위타보살이 있다. 위타보살은 장군상(將軍像)으로 호법신장의 일종이다. 재신전을 지나 대웅보전. 앞에는 석가모니불, 뒤편으로 아미타불, 그 좌우 구석진 곳에 지장왕보살과 보현보살이 자리잡고 있다. 석가모니불을 중앙으로 하여 그 좌우측 벽면에는 18존자가 모셔져 있다. 중국에서 보는 대웅보전과 미륵전의 일반적인 존상의 배치다. 처음에는 우리나라 사찰과는 이질적인 가람과 존상배치라 낯설었지만 자꾸보니 정겹다. 대웅보전의 천정이 이채롭다. 팔길상만다라(八吉相曼荼羅)가 화려하게 그려져 있다. 팔길상은 인도의 문양으로 좋은 일이 일어나고 성취되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경내 참배를 마치고 곧 구로동굴(九老洞窟)로 향했다. 구로동굴에 신선이 9명이 살고 있는데,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미산에 들어올라치면 번개를 내리쳐 근접치 못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번개노인이란다. 구로계곡 안에는 미로처럼 여러 굴이 있었다. 한 번 길을 잘못 들면 영원히 길을 잃고 만다. 결국 굶어 죽고만다.

구로계곡 안에는 선봉사 재신전과 같이 또하나의 재신상이 모셔져 있는데 재물을 많이 모으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신장(神將)이라고 한다. 재신상은 검은 호랑이를 타고 있는 모습으로 왼손에는 보석상자, 오른손은 큰 칼을 수지하고 있었다. 아주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구로동굴을 보고 다시 짐을 꾸려 홍춘평으로 향했다. 선봉사에서 홍춘평까지는 15㎞거리. 홍춘평은 해발 1120미터에 위치하고 있다. 홍춘평으로 가는 길은 줄곧 내리막 길이었다. 모두들 내려 걷는 것이 더 힘든 모양이다. 인대가 늘어나 못걷는 분도 생겼다. 어쩔수 없이 짐꾼의 가마를 신세지는 수 밖에.... 홍춘평으로 가는 길목에 아흔 아홉 굽이의 계곡이 유명하다. 굽이굽이 돌고 돌아가는 계곡. 계곡에 이르니 오랜만에 들리는 물소리. 그동안 깊은 골짜기인데도 물이 흐르지 않아 그 운치가 덜하였데, 골짜기 반대쪽 홍춘평에는 제법 계곡물이 흐르고 있었다. 계곡의 물소리를 들으며 일행과 떨어져 일부러 혼자서 걸었다.아무도 없는 계곡을 혼자서 걸으니 사실 조금 겁도 났지만 그래도 호적한 산길을 혼자서 걷는 일은 또다른 맛이 있었다. 염주알을 굴리며 옴마니반메훔을 큰소리로 부르면서 걸었다. 수많은 계단, 오로지 걸을 뿐이다. 아무런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다. 한 계단 한 계단, 걷고 또 걷고 걸을 뿐이다. 마치 만행(萬行)의 길을 걷는 구도자처럼....



◇위타보살의 장군상으로 일종의 호법신장이다.

홍춘효우(洪春曉雨)와 천불연등(千佛煙燈)의 사찰 - 홍춘평(洪春坪)

1시간 반을 걸어 홍춘평에 도착했다. '홍춘평'은 달리 '천불선원(千佛禪院)'이라고도 한다. 천불연등이 모셔져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홍춘평이라는 이름은 홍춘(洪春)이라는 나무가 많아서 붙여졌다고 한다. 경내에 들어서자 홍춘평이 깔끔하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었다. 어젯밤 세상지의 잠자리가 너무 불편했기 때문이다. 홍춘평은 송나라때 지은 사찰로 명나라때 덕행선사가 중흥을 이루었다. 덕행선사에 대한 일화는 이렇다. 덕행선사가 석장으로 땅을 치니 그곳에서 물이 솟아나므로 대중이 그 물을 풍족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그 우물이 마당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었다.

홍춘평에는 미륵전과 관음전, 대웅보전, 성현성불전 등이 있다. 15명의 스님이 수행하고 있다. 미륵전이자 관음전인 전각에는 관세음보살을 중심으로 좌우에 보현보살과 문수보살이 나란히 모셔져 있다. 특이한 존상배치다. 일반적으로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좌우 보현과 문수보살이 배치되는데 관세음보살이 중심이다. 대웅보전에는 석가모니불과 좌우협시로 보현보살과 문수사리보살이 모셔져 있다. 전형적인 불상배치형식이다. 그 좌우벽면에는 18존자상을 모시고 있다. 석가모니불 뒤쪽에는 아미타불이 모셔져 있는데 갓을 쓰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홍춘평의 제일 자랑거리는 관음전 입구 양쪽 벽면에 걸려져 있는 '백자주련'이다. '100자로 쓰여진 글'이다. 내용인즉 오른쪽은 홍춘평의 풍광을, 왼쪽에는 홍춘평의 역사를 적고 있다. 홍춘평을 대표하는 것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홍춘효우(洪春曉雨)와 천불연등(千佛煙燈)이다. 홍춘효우란 '홍춘평에는 늘 안개가 끼여있다'는 뜻이고, 천불연등은 관음전 2층에 걸려 있는 대형 연등에 천불이 모셔져 있는 것을 가리킨다. 그래서 천불선원이라는 편액이 산문(山門)에 걸려져 있는 것이다.

◇보국사 경내. 왼쪽 전각이 제일 첫번째 전각으로 미륵보살이 모셔져 있다. 참배객들은 도량에 들어서면서 초를 올리고 소원을 빈다.

우리 종단 정사들의 숙소는 천불연등 바로 옆에 있는 방이었다. 2층방에 복도식의 숙소는 조망권이 좋은 아파트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 뿐만이 아니다. 공동샤워장이 있어 땀내나는 몸을 씻을 수 있어 좋았다. 다 좋을 수는 없는법. 화장실은 여전히 적응하기 어려웠다. 가능하면 큰일(?)을 안보는 수밖에. 그러려면 음식을 조금 먹을 수 밖에 없다. 문이 없어 앞이 훤히 보이고 일어서면 옆사람이 내려다 보이는 화장실은 난감 그자체였다. 심란하기로는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였다. 뿐만 아니다. 전망좋던 홍춘평의 숙소는 잠자리에 들즈음 정반대가 되어 버렸다. 쾌쾌한 냄새는 그나마 견딜만 하였지만 깨진 유리창으로 고양이가 들락거리는 데에 그만 소스라치게 놀랐고 잠마저 달아나 버렸다. 보통 신경쓰이는 게 아니었다. 천장 곳곳에는 거미들이 집을 지어놓고 여기저기 기어다녔다. 이불은 일광소독을 하지 못해 그렇지 않아도 눅눅한 잠자리는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다. 이불에서는 지독한 냄새가 진동을 했다. 그러나 추우니 어쩌랴. 덮고 잘 수 밖에....

쌍교청음(雙橋淸音)과 생태공원 - 청음각(淸音閣)

다음날 아침 7시30분, 공양을 끝내고서 우리 일행은 8시30분 청음각(淸音閣)으로 출발했다. 청음각으로 내려가는 길은 수월했다. 평탄한 길도 제법 있어 여유를 가지고 경치를 구경하며 내려왔다. 청음각은 아미산 생태공원이 있는 곳이라고 했다. 그 때문인지 관갱객이 제법 많았다. 심산유곡(深山幽谷)이라 했든가. 깊은 산에는 계속이 있게 마련이고 계곡이 있으면 자연히 물이 흐르는 법이다. 자연의 섭리다. 협곡에 다다르니 계곡 벽면에 커다랗게 '南無阿彌陀佛'이라 적힌 글이 인상적이었다. 이 협곡을 일러 일선천(一線天)이라 한다. 청음각에 다다르니 많은 관광객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 와중에 처음으로 한국말을 들었다. 타국에서 만난 한국사람. 참으로 반가웠다. 아주머니 두분이 서울에서 왔다고 했다. 우리 보고 여긴 왠일이냐고 했다. 한국에서 온 중국불교수행체험단이라 하니 오히려 그 쪽에서 더 반가워했다. 아미산에는 아직까지 한국관광객이 많지 않았다. 황산, 장가계, 구화산 등 중국 동부지역에 비해 한국관광객의 발걸음이 뜸한 곳이다.

청음각은 계곡을 따라 지어진 사찰이다. 높이가 해발 710미터. 계곡이라 그런지 전각은 하나밖에 없다. 명나라때 건립된 사찰이다. 청음각 아래는 계곡, 물, 바위가 멋들어지게 펼쳐져 있는 곳으로 자연풍광이 빼어난 곳이다. 쌍교청음(雙橋淸音)이라. 청음각을 내려오면 정자를 사이에 두고 똑같은 모양으로 두 개의 계곡이 흐르고 그 계곡 위에 두 개의 다리가 놓여져 있다. 쌍교청음은 이를 표현한 이름이다. 계곡 아래 두 갈래로 떨어지는 폭포는 보기만 해도 시원했다. 폭포 아래의 못에 커다란 돌덩어리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소의 심장과 같다하여 우심정(牛心井)이라 한다. 청음각 주변은 전체가 자연생태공원이라 물과 바위, 계곡, 동식물박물관 등이 있어 관광코스일 뿐 아니라 참배사찰로서도 유명한 곳이라고 한다. 그래서 청음각 아래서부터 아미산 입구까지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로 넘쳤다. 사진을 제대로 찍을 수 없을 정도였다.

청음각을 내려오면 평지가 꽤 있어 산입구가 가깝다고 여겨졌지만 한참을 내려오는 동안 평지이다 싶으면 깊은 계곡이요, 계곡이다 싶으면 또 평지였다. 입구까지 내려와보니 그곳이 꽤 놓은 산자락임을 알 수 있었다.

수행체험의 교훈 -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아미산 입구까지 한참을 걸어서 내려오니 넓은 주차장은 사람과 차들로 붐볐다. 버스를 타고 첫날 묵었던 보국사에 도착했다. 고단한 산행 일정이 모두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피로감이 한꺼번에 몰려 왔다. 숙소에 들어서는 순간,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다. 저녁 늦게 도착했던 첫날, 말할 수 없이 지저분하고 심란하게만 여겨졌던 그 숙소는 온데간데 없고 깨끗하고 반듯한 침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숙소를 잘못 찾아왔나 싶었다. 우리가 두고 간 것은 바퀴벌레도 그대로 있었다. 청소도 안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불결해보이지도 심란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푸근함과 함께 피로감이 밀려 오면서 아늑함마저 느껴졌다. 마음 한 곳에서 원효스님의 일화가 떠올랐다. 전날밤 마셨던 물이 꿀맛 같았지만 이튿날 해골바가지에 고인 물이었음을 알았을때 토하듯 역겨움을 느꼈으니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 '모든 것은 내마음으로 짓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싶었다. 온 몸에 전율이 느껴졌다. 참으로 무명중생(無明衆生)임을 피부로 느꼈다. 무엇이 옳다하고 무엇이 그르다 할 것이 있으며, 좋다 나쁘다는 분별을 어찌 가질 것인가. 긍정과 부정의 극단, 그 어디에도 걸림이 없이,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는 마음자세, 집착과 얽매임 없이 받아들이는 자세. 이번 불교수행체험에서 얻은 교훈이요 커다란 배움이었다. 여기에 보현행과 자비행이 곁들어져야 한다. 자(慈)는 남에게 즐거움을 베풀어 주는 것이요, 비(悲)는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다. 내 마음에서부터 내자신에게 먼저 시작되어야 하리라. 자신이 자신에게 자비스러워야 남에게도 자비를 베풀 수가 있는 것이다. 자리이타가 다른 것이 아니다.

시련과 고통은 지나고 나면 이미 사련과 고통이 아니다. 어떠한 시련과 고통, 악조건도 이겨내지 못할 것이 없다. 이 목숨이 다하지 않는 한. 이번 수행체험에서 얻은 마음공부다. 그리고 11일간의 일정동안 보는 것, 듣는 것, 경험하는 모든 것이 수행이요 체험이었다.

불교설화 <4>

구두쇠 영감의 최후

아주 먼 옛날, 황해도 벽성군 동운마을에 곽씨라는 부자 영감이 살고 있었다.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서 수많은 하인을 거느리고 호의호식하는 등 세상에 부러울 게 없이 사는 곽노인이었으나 웬일인지 그에게는 소생이 없었다. 그래선지 곽영감은 매일 기생들을 불러 마시고 노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삼았다. 그는 이렇게 돈을 물쓰듯 하면서도 동네 사람이나 일꾼, 그리고 걸인들에게는 어찌나 인색했던지 마을 사람들은 그를 구두쇠라고 불렀다.

김매던 일꾼이 잠시 쉬거나, 머슴이 병들어 누워 일을 못하면 품삯이나 새경을 감할 만큼 곽영감은 박정했다.

그의 집에선 거문고소리와 기생들의 웃음소리가 끊일 사이가 없었다. 인근 고을 걸인들은 이 소리에 솔깃해서 뭘 좀 얻어갈까 해서 매일 곽영감 집 앞에 몰려들었다. 구두쇠 곽영감은 이 걸인들을 제일 골치 아프게 여겼다.

『주인 어른, 한푼 줍쇼.』

『뭐, 한푼 달라구? 한푼은 커녕 반푼도 없다.』

기생들의 가무에 취해 정신이 없던 곽영감은 걸인들의 구걸 소리에 흥을 잃은 듯 버럭 화를 내며 하인을 불렀다.

『이놈들아, 저놈을 썩 내쫓지 못하고 뭣들 하는 거냐?』

분부받은 하인은 걸인의 행색이 하도 초라해 차마 밀어내질 못했다.

『주인 어른, 한푼이 없으시거든 밥 한술을 주시든지 그도 안되면 막걸리나 한사발 줍쇼.』

『여봐라, 저놈의 목이 컬컬한 모양이니 돼지막에 가서 뜨물이나 퍼다 얼굴에 끼얹어 줘라.』

뜨물세례를 받은 걸인은 욕설을 퍼부으며 달아났다. 그 후 곽영감 집에서는 걸인이 오기만 하면 으레 돼지 뜨물을 퍼다가 끼얹었다.

『허허, 다음에는 뜨물도 아까우니 똥물을 퍼다가 안겨 주도록 해라. 하하하.』

곽영감은 날이 갈수록 걸인 박대가 심해졌고 그 소문은 널리 퍼져 걸인들의 내왕이 뜸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웬 탁발승이 곽영감 집 앞에서 목탁을 치며 염불을 하고 있었다.

『에이, 저 빌어먹을 녀석이 똥물 맛을 보려고 또 왔군.』

곽영감은 걸인이 왔는 줄 알고 소리를 치며 뛰쳐 나갔으나 의젓한 스님의 모습을 보고 주춤했다. 그는 문득 스님을 골려주고 싶어 나직한 목소리로 하인을 불렀다.

『여봐라, 저 중의 걸망에다 똥 한 사발을 퍼다 부어라.』

『예? 스님 걸망에 똥을요?』

『쉬이, 들을라. 어서 퍼다 주지 뭘 꾸물대고 있느냐?』

하인은 하는 수 없이 똥을 퍼 가지고 스님 앞으로 다가갔다.

눈을 감고 열심히 염불삼매에 든 스님은 걸망에 똥을 넣어주자 합장한 채 정중하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주인장, 대단히 고맙소. 걸인들이 자주 찾아와 몹시 귀찮게 구는 모양인데 내 좋은 비법을 알려 주리다.』

곽영감은 귀가 번쩍 뜨였다.

『좋은 비법이라고? 무슨 비법인지 어서 알려 주십시오.』

『뒷산에 가 보면 용머리처럼 생긴 바위가 있을 것입니다.』

『예, 있지요. 있고 말고요.』

『그 바위 머리 부분을 자르십시오. 그러면 다시는 걸인이 얼씬도 안 할 것입니다.』

곽영감은 기뻐 어쩔 줄 몰랐다. 노발대발 욕이나 퍼부을 줄 알았는데 똥을 받고도 걸인이 찾아오지 않을 비법을 일러주다니 곽영감은 마치 금을 캔 듯 신바람이 났다. 한시가 급한 곽영감은 즉시 일꾼들을 모아 뒷산으로 올라갔다. 일꾼들은 바위에 구멍을 뚫기 시작했다. 바위가 워낙 크고 단단해서 작업이 수월치 않자 곽영감은 안달이 났다. 아무리 재촉을 하고 성화를 부려도 좀체로 구멍이 뚫리질 않았다. 한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는 동안 곽영감은 인부를 들볶다가 다시 술과 돈을 주며 달래면서 불철주야 일을 했다. 만 3개월 그렇게 계속 한 끝에 바위가 반쯤 갈라졌다. 곽영감은 더욱 인부를 독촉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인부 한 사람이 허겁지겁 달려와 숨넘어가는 소리를 했다.

『저어 영감님, 크- 크- 큰일났습니다.』

『아니, 웬 수선이냐?』

『반쯤 갈라진 바위 목줄기에서 피가 흘러내립니다.』

『뭐 피가 흐른다고?』

곽영감은 놀란 인부를 앞세우고 용머리 바위로 달려갔다. 인부들은 놀라서 모두 일손을 놓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반쯤 갈라진 바위 목줄기에선 붉은 피가 흐르고 있었다.

곽영감은 왈칵 두려운 생각이 들었으나 스님의 말이 떠올라 길조일 것이라 짐작하고 일을 계속토록 지시했다. 그러나 인부들은 얼른 나서려 하지 않았다.

『영감님, 이는 예삿일이 아닌 듯하옵니다. 곧 산신제를 지내고 공사를 중단함이 좋을 듯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어서 일을 계속해라.』

『아니옵니다. 소인들은 더이상 일을 못하겠습니다.』

『어허, 어서 저 바위 머리를 싹둑 잘라 내거라. 수고비는 내 두 곱으로 주마.』

인부들은 불길한 징조인 줄 알면서도 곽영감의 고집에 하는 수 없이 다시 바위를 자르기 시작했다.

바위가 피를 흘리기 시작한 지 사흘이 되던 날. 남은 부분에 금이 가면서 피가 철철 흐르더니, 동아줄을 걸어 잡아당기자 바위의 목이 힘없이 뚝 부러졌다. 그때, 하늘이 순식간에 먹구름으로 덮이더니 번개와 벼락이 떨어지면서 불바다를 이루었다.

곽영감은 고래고래 소리치며 하인을 부르다 벼락에 맞아 죽었다.

뿐만 아니라 고래등 같은 곽영감의 집도 씻은듯 불타 없어졌다.

이 천지개벽이 있은 다음 동네 사람들은 사동리라는 옛마을 이름을 버리고 용의 머리라는 뜻에서 「용두리」라고 마을 이름을 고쳐 불렀다. 그 후 이 동네 사람들은 구두쇠 곽영감의 비참한 최후를 교훈삼아 이웃끼리 서로 도우면서 살기 좋은 마을을 이루었다. 또 효자 열녀를 많이 배출했다고 한다.

생활속의 밀교

마음을 열어 나를 다듬자

말(言)은 우리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정다운 인사 한마디가 하루를 멋지게 열어줍니다. 우리는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짧지만 이런 한마디 말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요. "괜찮아." "고마워." "힘내" "미안해." "잘했어." "넌 항상 믿음직해."" "넌 잘 될 거야!" "네가 곁에 있어서 참 좋아." 등은 서로를 기분좋게 합니다. 듣는 사람은 들어서 좋고 듣는 사람이 좋아하니 말하는 사람도 덩달아 좋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험담을 하지 않고 상대의 장점을 들어내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사용하는 말은 그 사람의 삶을 말해줍니다. 오늘 나는 주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말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이 행복할 때 우리는 더욱더 행복해집니다.

▶ 이런 것들이 하찮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고 돈많이 버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찮은 것이라도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너무나 중요하고 귀중한 것입니다. 하찮은 것을 최상의 것으로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생각을 먼저하고 행동을 나중에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언제나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루 동안만이라도 친절하고 즐겁고 동정적이고 깊은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관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슨 일을 잘 하지 못한다고 사람들을 나무라지 마세요 어리석은 일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고 금방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봐야 오늘 하루뿐인걸요. 누가 알아요. 그러다가 아주 좋은 날이 될지.. 가급적 약속을 하지 말되 일단 약속을 했다면 성실하게 지키세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말이죠. 하루를 늘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즐거워 하세요...! 당신이 하찮은 일로 속을 끓이고 아파하고 실망에 빠진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더욱 우울해지지고 힘들어집니다. 이 세상에 마음의 짐을 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분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마세요.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으면 지금 보다 더 행복한 순간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쓸모없는 날은 웃지 않는 날입니다. '믿음'의 양에 따라 그만큼 젊어지고, '의심'의 양에 따라 그만큼 늙어갑니다. '자신감'의 양에 따라..그만큼 젊어지고, '두려움'의 양에 따라 그만큼 늙어갑니다. '희망'의 양에 따라 그만큼 젊어지고, '낙심'의 양에 따라 그만큼 늙어갑니다. 항상 새롭게 항상 즐겁게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회 생활을 하는 우리들 대부분은 하루에도 수 없이 마음의 평정을 위협하는 상황에 마주치게 됩니다. 즉, 예상하고 있던 곤란한 경우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비난이나 반대 등, 어려움을 겪습니다. 마치 항해사가 훌륭한 항해술을 배웠다고 하여도 오직 순조로운 항해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폭풍과 풍랑을 만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이겨내려는 의지와 노력입니다. 어떠한 경우든 자포자기해서는 안됩니다. 환경을 탓해서도 안됩니다. 오직 최선만을 다할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 부딪치게 되면 외부적인 것이나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것이 자신이 겪는 어려움과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탓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언행자로서 먼저 문제의 본질을 명확히 이해하여야 합니다. 그 문제의 본질은 바로 어리석음이고, 그로 인한 마음의 맹목적인 충동이 괴로움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오직 올바른 해결 방법은 우리 스스로 그러한 상태를 관찰하는 법을 배워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로만 하거나 머리로 이해한다고 해서 쉽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로지 자기 실행에 있습니다. 화를 내고 있는 자신을 관찰하므로서 더욱 너그러운 사람으로 바꾸게 할 있습니다. 이것이 생활속의 수행이며, 불공입니다.

다툼이 일어나면 화냄, 적개심, 질투 같은 것이 그 누구도 예외없이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것을 유심히 관찰하지 않으면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 자신도 모르게 말하고 행동해 버립니다. 그리고 지나간 다음 나중에서야 실수를 깨닫고 후회하지만 이미 모든 것은 늦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음에도 그러한 상황이 오면, 또다시 똑같은 행위가 계속되고 반복됩니다.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진언염송을 통해 월초불공을 통해 그것을 서서히 아니면 단번에 제거해버려야 합니다. 옴마니반메훔.

〈법경/통리원 교정부장/법장원 연구원〉

진언수행의 길

희사법

희사(喜捨)란 보시의 일종으로 부처님께 기쁜 마음으로 공양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 희사는 깨끗해야 한다. 이를 정시(淨施) 또는 정사(淨捨)라고도 한다.

희사를 함에 있어서 희사하는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야 하고, 희사공양 받는 대상도 깨끗해야 하며, 희사금이나 공양보시하는 물건도 깨끗해야 한다. 이를 삼륜청정이라 한다.

희사는 주로 삼보를 공양하기 위하여 돈이나 물건을 보시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총지종의 희사법에는 종류와 성질에 따라 법시와 재시, 절량희사가 있고, 시기에 따라 행하는 희사로 정시와 차시가 있으며, 그 내용과 구별에 따라 유상희사와 무상희사가 있고,

희사하는 방식에 따라 십일희사와 십이희사가 있고, 대상과 용도에 따른 것으로 단시, 반포법시, 보은시가 있다.

종조님께서는 희사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하셨다.

"물질시대는 재물을 부정하게 벌고 불의하게 쓰는 두 가지 악이 점점 성해진다. 이것을 다스리자면 먼저 옳게 쓰는 법으로 인도해야 한다. 물질시대의 재물은 희사로 복되게 나가는 것과 고통으로 나가는 두 문이 있으므로 복의 문을 힘써 여는데 고통과 재화로 나가는 문은 없어진다. 만약 부정하게 들어온 재물에 대해 희사문을 열지 않으면 그 고통과 재화는 한량이 없으니라. 그러므로 희사공덕은 현재에는 곤란, 재앙, 우환, 질병을 소멸하고 미리 없애며, 미래에는 부귀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되느니라" 하셨다.

www.mohw.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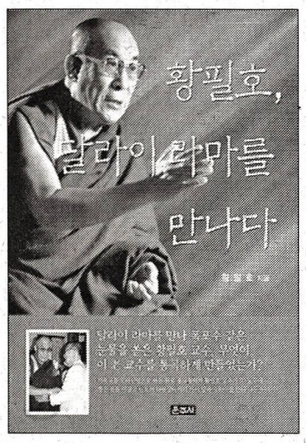
힘내세요
당신의 내일은
희망입니다

새롭게 확대된 2005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만나보십시오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이달의 추천도서

황필호, 달라이 라마를 만나다



황필호 저 / 운주사 / 정가, 9,000원

'철학의 생활화, 생활의 철학화'를 위해 노력하는 사단법인 생활철학연구회 회장 황필호와 티베트의 독립을 위해 노력하는 노벨평화상 수상자 달라이 라마의 대화를 담은 책. 〈웃음과 영성〉, 〈불교와 무신론〉, 〈궁극적 실재의 인격성과 비인격성〉, 〈반개종 선언문〉, 〈환생에 얽힌 문제들〉, 〈한국의 현실〉, 〈티베트 불교의 특성〉, 〈페미니즘〉을 주제로 저자가 달라이 라마와 나눈 대화를 재구성했다.

암투병 중임에도 달라이 라마를 만나기 위해 티베트 망명 정부가 있는 다람살라까지 간 저자는 자신이 그곳에서 달라이 라마와의 대화를 통해 얻은 깨달음도 들려주면서, 우리의 삶을 평화로 인도하고 있다. 책 곳곳에는 대화 중 촬영한 달라이 라마 등의 사진도 수록했으며, 부록에는 티베트 망명 정부의 여성위원회가 달라이 라마의 사상을 주제별로 짧게 서술한 책을 번역하여 담았다.

책의 내용은 첫번째 주제 웃음과 영성, 두번째 주제 불교와 무신론, 세번째 주제 궁극적 실재의 인격성과 비인격성, 네번째 주제 반개종 선언문, 다섯번째 주제 환생에 얽힌 문제들, 여섯번째 주제 한국의 현실, 일곱번째 주제 티베트 불교의 특성, 여덟번째 주제 페미니즘

부처와 꽃을 보러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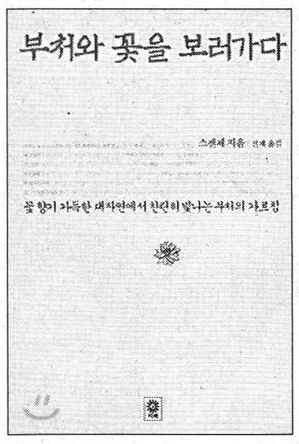
스젠제 저/선재 역 / 비채 / 정가 10,900원

세상사의 모든 인연은 복잡다단할 뿐만 아니라 무상하게 변화한다. 우리는 그 변화를 따르지 못하고 어느 한 지점에 머물러서 고집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그 지점의 인연은 이미 바뀌었을 수도 있고 모든 인연의 조건이 다시 새롭게 짜였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느 지점에 의거해 자기 견해를 견지한단 말인가? 설사 뒤엎을 수 없는 진리라 해도 제한적이고 협소한 눈길로 본다면, 그 뒤에 숨은 심각한 뜻과 함축된 의미를 어떻게 읽어낼 수 있겠는가? 어쩌면 단지 앵무새가 말을 흉내 내듯이 구호만을 외칠 뿐이다.

------본문중에서

꽃 한 송이를 관조하는 데에서 시작하라. 대자연을 배우라. 대자연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스승이다. 계절마다 피고 지는 꽃은 끝없이 생겨나고 소멸하며 변화하는 세상의 이치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르쳐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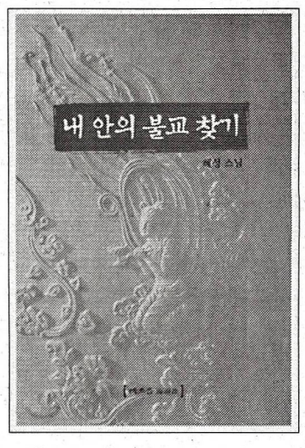
대만의 선승이자 문필가로 이름 높은 스젠제 스님이 꽃이 피고 지는 자연의 현상을 관찰하면서 55가지 꽃에 비유하여



부처의 가르침을 풀어낸 불교 수상집이다. 대만의 유력 일간지 〈차이나 타임스〉에 '불법의 비밀화원'이라는 제목으로 연재했던 글을 모은 것인데, 연재 당시 불교에 대한 깊은 사유를 서정미 넘치는 문장으로 많은 불자들의 사로잡았다.

그윽한 향기를 풍기면서 찬란히 피어있는 꽃을 보면서 생의 기쁨을 떠올리고, 시들어 떨어지는 잎과 꽃을 보면서 생의 소멸을 읽는다! 본문 중간 중간 스젠제 스님이 관조의 대상으로 삼은 꽃 일러스트를 함께 박아 예쁘게 편집했다.

내 안의 불교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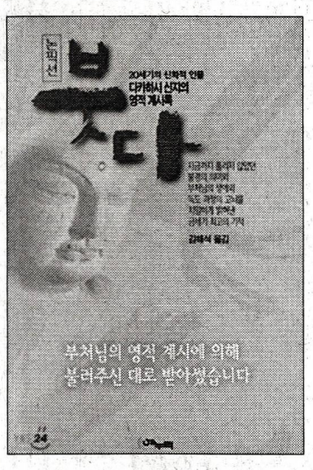
혜성 스님 저 / 해조음 / 정가 9,000원

저자가 그동안 대구불교방송의 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쓰거나, 법회에서 불자와 함께 생각 해 본 불교 이야기를 모았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마음을 열어주는 지혜를 담아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나임을 깨닫고 내 안에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삶의 길을 찾도록 이끌어준다.

목차는 제1장 지혜의 향기, 제2장 가르침의 바다, 제3장 믿음의 열매, 제4장 향기로운 삶

제5장 좋은 불자의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논픽션 붓다



다카하시 신지 저/김해석 역 / 해누리 / 정가 18,000원

제타베나에 붓다가 기거하게 되자 코살라국은 갑자기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붓다의 소문이 나라 안에 퍼지니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날로 늘어났다. 그 중에서도 파세나데왕과 제타가 의좋게 붓다에 귀의한 사실은 바라문 수행자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주었다. 두 사람은 이복형제여서 우의도 별로 좋지 않았고 양국간의 교류도 형식적이었기 때문이다. 동생 파세나데는 형제타를 속으로 늘 못마땅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기회만 있으면 형의 영토로 쳐들어가서 성가신 존재를 제거해 버렸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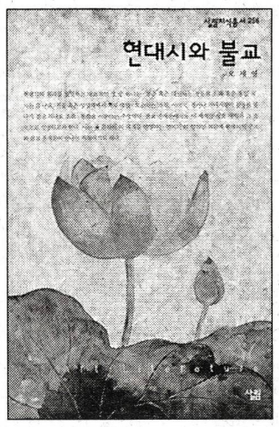
그러나 붓다로 인해 두 사람의 사이는 어린 시절의 절친한 사이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들 마음 속에 있던 무거운 짐은 봄빛을 쬔 눈처럼 녹아버렸다.

이 기적 같은 현실을 목격하고 바라문 수행자들은 모두 붓다의 큰 법력 앞에 두려움을 느꼈다. 나아가 붓다의 출현으로 자신들의 입장과 제사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했다.

---- 본문중에서

다카하시 신지의 영적 계시록이다. 지금까지 풀리지 않았던 불경의 의미와 부처님의 생애, 득도 과정의 고뇌를 치밀하게 밝혀냈다. 저자는 이 책을 부처의 영적 계시에 의해 불러주신대로 받아썼다고 말하고 있다. 20세기의 신화적 인물로 알려져 있는 그는, 본 저서를 비롯하여 그의 저서들은 모두 영어판으로 출간되어 이미 전세계에 소개되었으며 그의 저서『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게 된 7가지 이유』는 다카하시 신지의 자전적 고백을 통해 영혼의 존재이유를 밝혀준 명저로 알려져 있다.

현대시와 불교



오세영 저 / 살림출판사 / 정가 3,300원

문명사가들에 의하면 오늘날 서구 문명사는 위기에 처해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의 문명사적 종말을 새로운 이념의 확립으로 극복하고자 하며, 그 가장 가능성 있는 대안의 하나를 동양의 예지, 그중에서도 불교나 노장사상에서 찾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서구의 현대시론이 불교 세계관이나 선 사상으로부터 많은 자양을 섭취하고자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저자는 불교에서의 세계관이 현대시 및 현대시론에 끼친 영향을 시의 실재 인식과 존재론적 언어, 시의 구조, 시의 표현 등에서 살펴보면서, 이 모두는 표면상 불교와 아무 관련이 없는 듯 보이지만 그 심층에 있어서는 불교의 영향을 깊이 받았거나 최소한 불교적 세계관과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설명해 준다. 더불어 르네상스에서 비롯된 계몽주의적 세계관과 이를 토대로 한 서구의 물질문명은 종말에 다다랐다는 의식이 보편화되고 있는 요즘, 그러한 관점에서 오랜 동안 동양문화를 떠받친 기둥의 하나였던 한국의 지혜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는 것을 저자는 주장한다. 한국의 문학 혹은 문학이론 역시 이제는 일방적인 서구추구에서 벗어나 오히려 서구의 요청에 부응하는 독자적이고도 고유한 자신의 영역을 구축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현대시에 끼친 불교의 영향 혹은 상호 공통성을 확인해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책에서는 현대시의 언어와 불교 언어의 동일성, 더 나아가 현대시에 끼친 불교의 영향을 성찰하고 있다. 불교에서의 세계관이 현대시 및 현대시론에 끼친 영향을 시의 실재 인식과 존재론적 언어, 시의 구조, 시의 표현 등을 통해 살펴보면서, 이들이 표면상 불교와 아무 관련이 없는 듯 보이지만 그 심층에 있어서는 불교의 영향을 깊이 받았거나 최소한 불교적 세계관과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달의 생활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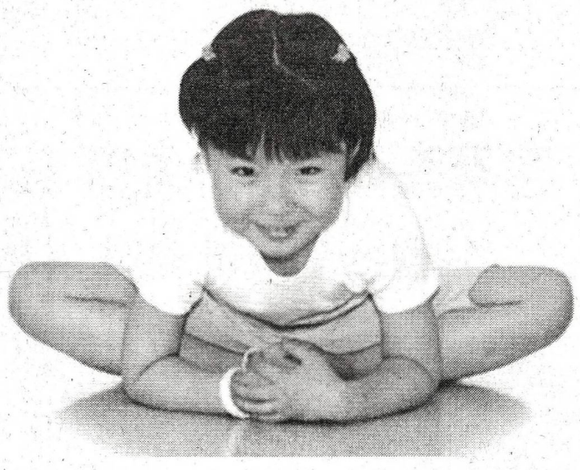
나비자세

1. 발바닥을 모아서 앉아줍니다. 양손 등뒤 바닥 짚고 등을 쭉 펴봅니다. 골반으로부터 척추 전체가 쭉 펴집니다. 양손으로 무릎을 짚고 지긋이 눌러줍니다. 팔꿈치를 쭉 펴서 눌러주면서 고관절 안쪽과 다리의 자극을 느껴봅니다. 두세 번 지긋이 눌러줍니다.

2 들이쉬고 내쉬면서 등을 쭉 편 채로 손바닥 앞의 바닥을 짚어 내려가 봅니다. 통증이 느껴지는 데에서 멈춥니다. 천천히 열까지 세어줍니다. 아랫배의 편안한 호흡을 느껴봅니다.

3 숙련되어 등을 편 채 팔꿈치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내려갈 수 있다면 양손으로 턱을 괴어줍니다. 등을 편 채 턱을 괴어주면 상체를 완전히 이완하기 쉽고 상체가 완전히 이완되면 골반. 고관절의 힘도 절로 풀어져서 더욱 깊은 동작이 이루어집니다.

4 서서히 돌아와서 척추를 바르게 세운 뒤 무릎 위에 양손을 늘어뜨리고 눈을 감고 쉬어줍니다. 편안한 호흡을 따라서 양 고관절로부터 다리 전체가 시원해집니다. 발가락 끝에 저릿저릿한 느낌이 듭니다.



주의

1. 양 발바닥을 모은 선이 내 몸의 중앙선과 일치하게끔 해줍니다.

2. 양 무릎은 위 아래로 기울어지지 않게 수평으로, 앞뒤로 어긋나지 않게 일자가 되도록 합니다.

3. 몸이 풀어진 정도에 따라서 더 많이 내려가는 분도 있고, 팔꿈치가 닿는 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이 풀어진 정도에 맞게 동작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으로 억지로 동작해주려고 하면 우리 몸은 더더욱 나그네처럼 긴장하게 됩니다.

호흡을 편안하게 하면서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내려가 햇님이 비추듯이 편안한 호흡으로 온몸을 부드럽게 해 보세요. 호흡을 따라서 서서히 통증이 덜해지면서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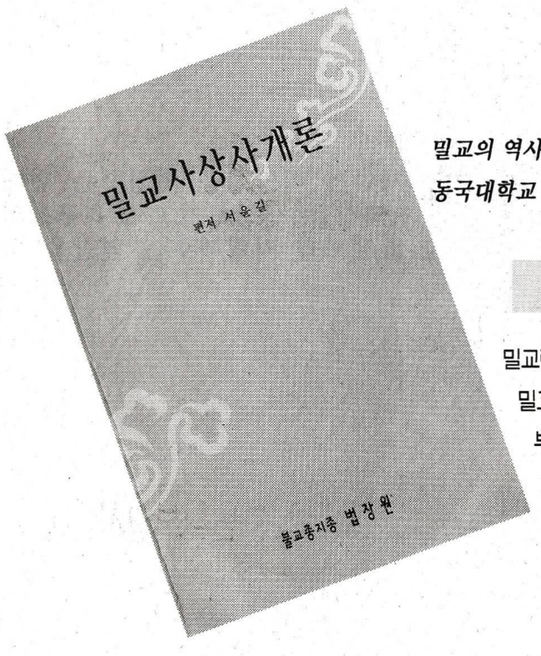
효과

1. 나비자세는 골반과 고관절을 풀어주고 위아래, 앞뒤로 치우쳐 있는 것을 바로잡아줍니다. 상체를 정면으로 해서 등을 쭉 펴고 내려가 주는 것으로 골반, 고관절의 위치 이상과 척추의 이상을 교정해줍니다.

2. 허리, 골반, 고관절, 무릎, 발목까지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어서 온몸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3. 특히 하체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또 항문 주변의 근육인 괄약근의 조이고 푸는 힘을 강하게 해주어 치질을 치유해줍니다

『밀교사상사개론』



밀교의 역사와 교리에 대한 국내 최초의 본격적 개론서 ! ! !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서윤길 교수 외 7명의 밀교학자가 공동 집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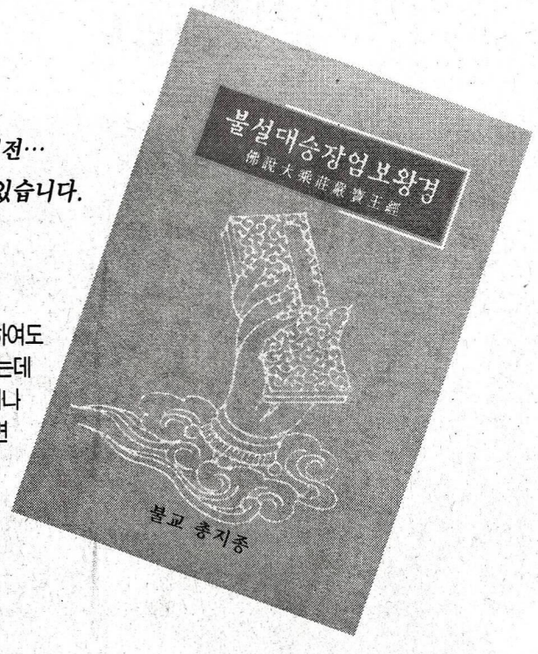
주요내용

밀교란 무엇인가/밀교의 기원과 형성/밀교의 성립과 전개/
밀교의 사상과 그 교학적 배경/밀교의 수행과 실천/한국의 밀교/
부록:한국현대밀교와 원정대성사

국판/437페이지/정가 15,000원

『불설대승장엄보왕경』
(佛說大乘莊嚴寶王經)

육자대명다라니《옴마니반메훔》의 유래와 공덕을 설한 경전…
이 경을 지니기만 하여도 무량한 복덕과 안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정들이 오직 이 경의 이름만 생각하여도
이러한 이익과 안락을 얻는데
만약 누군가 이 경을 듣고 베껴쓰거나 수지하거나
독송하거나 공양하고 공경하면
그 사람은 항상 안락을 얻을 것이니라."
---본문 중에서 -----

변형 국판/130페이지/정가 7,000원

도서출판 불교 총지종
Tel:(02)552-1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6-2

독실한불자 반기문 장관 유엔사무총장에 공식선출

충주성덕사 신도 신현순 보살 불심 代 이어

◇지난 10월 6일 반기문 장관이 어머니 신현순 보살과 함께 선친 묘소를 성묘하기 위해 고향마을을 찾았을 때의 모습.

한국인 최초로 유엔 사무총장에 선출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뒤에는 매일 새벽 당선 기원 불공을 드린 어머니 신현순(85·충주시 문화동) 보살의 불심이 있었다.

반 장관은 10월 9일 유엔 사무총장 단독 후보로 지명됐으며, 14일 열린 유엔 총회에서 인준을 받았다.

신현순 보살은 충주 성덕사(주지 지광)를 50여년 다니며 불심을 다져왔다. 신 보살은 성덕사 중창불사 때에도 가장 많은 시주를 해 중창불사를 기념하는 공덕비에 반기문 장관 이름이 첫 번째로 들어가 있을 정도다.

신현순 보살의 불심은 반기문 장관에게도 그대로 전해졌다.

반 장관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몸에 배어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늘 환한 얼굴과 하심으로 부하 직원들에게 먼저 출입문을 열어주는 친절은 다반사라고 한다.

반 장관의 이 같은 겸손과 남을 위한 배려는 어머니 신현순 보살의 가르침 덕분이다.

성덕사 주지 지광 스님은 "반기문 장관 아버지 위패도 성덕사에 모셔져 있고, 지난 추석 때에 신현순 보살과 반 장관이 성덕사에 들르기도 했다"며 반기문 장관 모자의 불심을 전했다.

한편 반기문 차기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10월 24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을 예방하고 "불교계를 비롯해 정치계, 경제계 등 각 층에서 서원해주신 덕분"이라며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영정 모신 직지사

서거일에 찾는 사람 늘어

◇경북 김천의 직지사 명부전에 봉안돼 있는 고 박정희 전 대통과 고 육영수 여사, 박 전 대통령의 부모 영정.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일인 26일 경북 김천의 직지사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직지사 명부전에 박 전 대통령 영정과 위패가 봉안돼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는 않지만 직지사에 박 전 대통령 영정과 위패가 있다는 사실은 박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사람들에 의해 알음알음으로 알려져왔다.

이 곳에는 박 전 대통령뿐 아니라 부인 육영수 여사와 박 전 대통령의 부모 영정과 위패도 있다. 명부전은 죽은 사람의 넋을 인도해 극락왕생하도록 기원하는 기능을 지닌 법당이다.

직지사 명부전은 많은 사람들의 위패가 있지만 박 전 대통령 가족만 영정이 봉안돼 있어 눈길을 끈다. 이 때문에 직지사를 찾는 관람객들은 박 전 대통령에 관한 평가와 관계없이 한번씩 명부전을 들르곤 한다.

박 전 대통령 가족 영정은 명부전 내 오른쪽에 마련된 사당 속에 봉안돼 있다. 영정 앞에 향로와 촛대, 복전함 등이 설치돼 있고, 난 두 그루가 장식돼 있다.

구미 출신인 박 전 대통령은 불교신도였던 부모를 따라 김천의 직지사를 자주 다녀갔다고 전해진다. 박 전 대통령은 1970년대에 직지사 주지였던 녹원 스님에게 부모의 천도재를 지내달라고 부탁하는 등 직지사와 많은 교류를 했다고 사찰 관계자들은 전한다.

박 전 대통령은 직지사 경내에 사명대사를 모신 사명각 복원공사에 맞춰 현판 글씨를 쓰기도 했다. 서거 후 직지사측은 현 직지사 회주인 녹원 스님 주도로 영정과 위패를 봉안했고, 매년 추도재와 박 전 대통령 서거일에 맞춰 기제사를 지내고 있다.

20여년 간 부모의 기제사를 지내온 사실을 알게 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2004년 7월 부모의 추도재가 열리는 날에 맞춰 직지사를 방문해 고마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자신을 불교신자라고 밝힌 이명우(56)씨는 "박 전 대통령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가끔 직지사 명부전에 들른다"며 "전직 대통령의 위패와 영정이 봉안돼 있는 사찰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진각종 제10대 총인 도흔정사 선출

12월초 인의회 추대 거쳐 임기 시작

진각종 10대 총인 도흔 정사

진각종 종의회는 10월 19일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총인원 내 종의회 회의실에서 제349회 정기 종의회를 열고 제10대 총인에 도흔 정사(경주 각성 심인당 주교)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종의회에는 종의원 35명 가운데 33명이 참석했다.

신임 총인 도흔정사는 "종조의 법통을 승수하며 종단화합과 발전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종단의 화합된 힘을 통해 국민이 총화하고 국가 발전과 인류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도흔 정사는 12월초에 열릴 예정인 인의회(원로모임) 추대를 거쳐 5년간의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도흔 정사는 1933년 경북 경주에서 출생한 제11대 통리원장과 제7대 종의회 의장을 비롯해 1대·2대·3대·4대·6대·8대·9대 종의원을 역임했다. 또한 통리원 재무부장·홍교부장을 지냈으며, 진각종 유지재단 이사와 학교법인 회당학원 상임이사 등의 소임을 맡아왔다.

낙산사 동종 복원 마치고 경내로

무게 1천 200kg, 보타락누각 임시 안치

지난해 4월 대형산불에 소실된 보물 479호 낙산사 동종이 복원을 마치고 경내로 옮겨졌다.

낙산사는 지난 10월 16일 복원된 동종을 종 제작사인 충북 진천의 성종사로부터 인수받아 보타락에 임시로 안치했다.

무게 1천200㎏의 새로운 동종은 2시간에 가까운 작업 끝에 임시 장소인 보타락 누각에 설치되었다.

낙산사 주지 정념 스님은 "오늘 울려 퍼진 새로운 동종의 종소리는 낙산사 복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알린 것"이라며 "낙산사 복원에 늘 관심을 가져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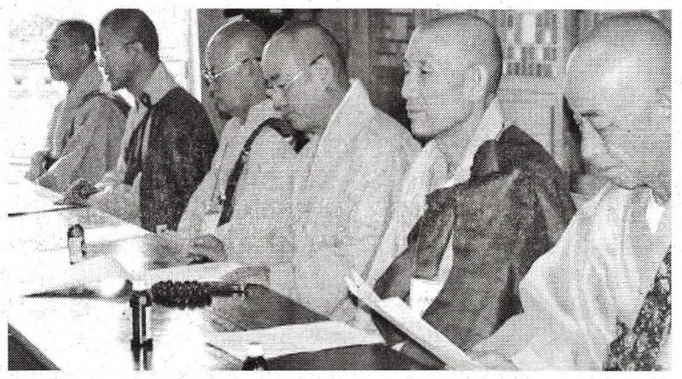
종제작에 참여한 인간문화재 112호 주철장 원광식(65)씨는 "실물 없이 탁본과 사진으로 종을 복원하다보니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 꼬임이 복잡한 쌍용의 모습과 장문의 양각명문을 재현하는 것이 특히 힘들었다"며 "모양도 중요하지만 소리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낙산사로 옮겨진 동종 제작에는 문화재 전문가와, 금속전문가, 조각가, 음향전문가 등 8명의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13개월이 소요됐으며 1억1천여만원의 제작비가 투입됐다.

산불에 소실된 낙산사는 현재 2차 발굴작업이 진행중이나 발굴이 완료된 원통보전에 대해서는 기공식 후 본격적인 복원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며 이날 보타락에 임시로 전시된 동종은 종각이 완성되는 대로 제자리에 봉안된다.

선암사 사태 20일 '루비콘강' 건너

대화 중단 31일 수계식 최대 고비



◇태고종 총무원측은 선암사 사태와 관련하여 경과를 보고하고 있다.

지난 8일 신.구 주지측의 폭력사태로 시발된 선암사 사태가 20일이 지나도록 별다른 진전없이 오히려 양측이 대화를 일체 중단한 채 태고종 총무원측이 징계절차를 밟는 등 강경 대응하기로 해 양측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

태고종 총무원과 선암사 재적승들에 따르면 신.구 주지 양측이 선암사 정상화를 위한 협상단을 구성, 지난 11일 7인 대책위원회를 갖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16일, 20일, 23일 세 차례 협상에 나섰지만 구 주지측이 '선암사 운영위원회법 폐지', 신임 주지 퇴진 등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23일 아후 대화가 완전 중단된 상태다. 게다가 태고종 총무원측은 구 주지측이 총무원장, 승정원장, 종회의장 등 종단내 최고층인 삼원장을 협상 상대로 요구하자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사태를 정면 돌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총무원측은 선암사내 팔선당에서 18일째 농성 중인 재적승들에게 승려 자격 정지를 의미하는 정적 조치를 내리기로 한데 이어 기존에 정적 조치된 전 주지 금용 스님 등 9명에게는 별도의 징계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총무원측이 강경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선암사 사태는 진정 국면이 아닌 사실상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다.

조계종 14대 중앙종회 76명 모두 확정

금강·보림회 세력 약화, 화엄회 약진 두드러져

조계종 제14대 교구직선 중앙종회의원 46명이 확정됐다.

10월 26일 오후 4시 투표를 마친 13개 교구는 일제히 개표를 시작해 4시 50분경 최종 당선자의 윤곽이 드러났다. 직선직 종회의원 51명 가운데 재선거를 치르는 불국사, 관음사 4석과 금산사 1석 등 5명을 제외한 결과다.

이로써 이미 확정된 직능직 20명과 비구니대표 10명 등 76명이 모두 선출됐다. 중앙선관위는 일주일간의 이의제기 기간이 지나는 11월 3일 최종 당선자를 확정하고 당선증을 교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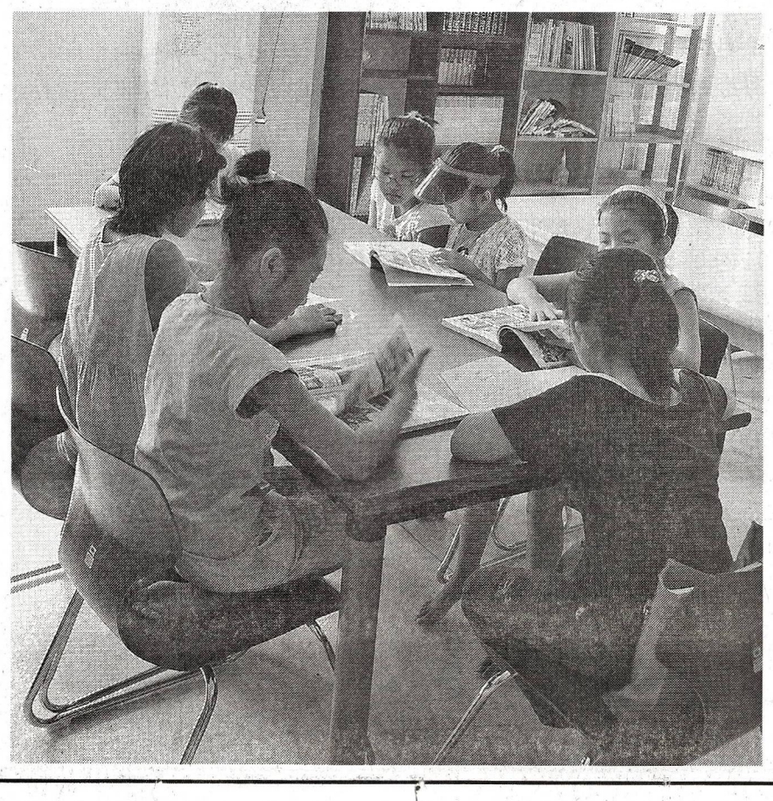
중앙종회의원선거법 제 38조에 따라 월정사, 수덕사, 직지사, 해인사 쌍계사 금산사 백양사 화엄사 대흥사 등 9개 교구에서는 후보자의 수가 교구 선출정수 이내여서 선거를 치르지 않았다.

이번 선거에는 모두 47명의 후보가 13개 교구에서 경합했다. 총 유권자수는 3580명으로 2595명이 투표에 참가해 72%의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최다 득표 당선자는 직할교구의 태연 스님(130표)이며, 최소 득표 당선자는 신흥사 지원 스님(19표)이다.

이번 선거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계파별 부침이 그 어느 때보다 강했다. 일승회를 비롯한 여당은 55석 이상을 차지해 재적 3분의 2인 개헌의석수를 충분히 넘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더욱 공고해진 여권의석 수를 바탕으로 종단운영에 상당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금강-보림회는 의석수가 상대적으로 약화돼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총지종 정각사 바라밀 공부방

바라밀 공부방은 불우한 아동들을 정성껏 보살피고, 교육시키는 것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현하는 사회복지기관입니다.



설립목적

바라밀 공부방 활동은 획일적이고 통제적인 교육에서 탈피하여 개성을 존중하고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현대 교육의 동향을 수용하고 인지적 영역 위주인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인성과 창의성을 신장시키고 교육구조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핵가족화로 인해 사회가 변화됨에 따라 가정을 둘러싼 환경과 가족제도를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

이용대상

저소득층의 맞벌이 부부의 아동. 결손가정, 생활보호대상자 아동

프로그램

2시~3시 : 과제 및 학습
3시~4시 : 태권도
4시~5시 : 책고르기 및 독서, 감상문쓰기
5시~6시 : 영어, 한문, 컴퓨터, 수학, 미술

※ 바라밀 공부방 봉사자 모집

바라밀 아동들의 학습지도 및 예체능 지도를 해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주1회~2회 1시간정도 봉사해 주실 뜻있는 분을 기다립니다.

연락처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8-8 ☎ : 051-552-7901
시설장 - 전수 정일혜 : 010-3913-6352, 이혜숙 : 010-4737-9321

교계소식

'종단초월'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

불교계사회복지기관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전국불교사회복지 발전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매년 연말마다 조계종이 주최하던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가 올해는 더욱 확대돼 불교계 전체 사회복지종사자들을 위한 축제의 장으로 거듭난다. 특히 올해에는 조계종 뿐 아니라 진각종과 천태종 사회복지재단까지 참여해, 범불교적인 화합의 한 마당이 될 예정이다. 더불어 불교계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까지 초청해 축제의 분위기를 더욱 돋운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지관)은 '나눔으로 하나 되는 대축제-불기 2550년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를 오는 11월 3일부터 이틀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및 조계사 일대에서 개최한다.

1부가 펼쳐지는 11월 3일에는 불교역사문화기념관 대강당에서 기념법회를 열고 불교사회복지유공자 시상식과 함께 '불교계 사회복지기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그간 불교계 사회복지기관들의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산하 불교사회복지연구소가 지난 4월부터 불교계 사회복지관련 법인 및 단체 전수조사에 착수해 이번 결과를 내놓게 됐다. 이번 조사는 불교계에서 실시됐던 복지관련 실태조사 중 가장 자세한 것으로, 불교계 복지시설의 운영현황 전반이 상세히 공개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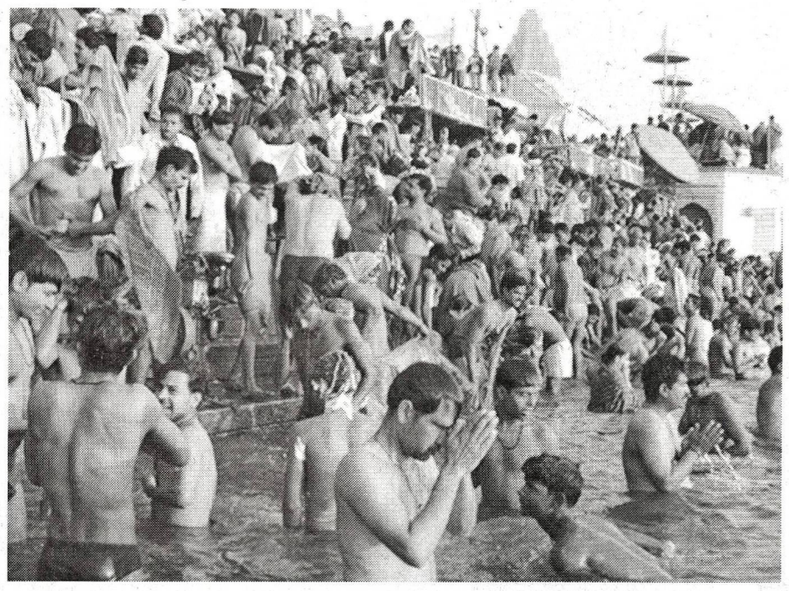
앞서 오전 10시 30분 조계사 권역에서는 불교계 산하 유아 및 보육시설을 다니는 어린이 500여명을 초청해 어린이들을 위한 '아동미술큰잔치'를 연다. 불교계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다니는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사찰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다.

11월 4일에는 조계사 일대에서 각종 불교계 복지단체가 참여하는 불교사회복지박람회 및 연예인 애장품전, 인기가수 초청공연, 각종 차 및 사찰음식 무료시식, 바자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이번 행사마당에는 △승가원, 연꽃마을, 불교사회복지회, 불국토, 진각복지재단, 천태종복지재단 등 불교계 대형복지법인과 △(사)생명나눔실천본부, 지구촌공생회, 정토회, 우리는 선우, 맑고향기롭게 등의 NGO 단체, △조계종직할자원봉사단, 천수천안, 정토마을, 중앙신도회 '반갑다 연우야', 불교환경연대 등 봉사단체, △조계사, 봉은사, 화계사, 도선사, 진관사, 불광사 등의 사찰 및 25곳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이용자 등 약 60여곳에 이르는 다양한 단체와 이용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우수한 부스를 추첨해 시상도 할 계획이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거듭난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를 계기로 불교자원봉사연대(가칭)를 발족하고, 다양한 복지단체간의 정보를 교류하는 범종단적 네트워크를 차츰 실현해나갈 예정이다.

지현 스님은 "올해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는 타종단과 불교계의 대표적 복지법인이 함께 개최해 '나눔과 화합'이라는 의의를 더욱 밝히게 됐다"며 "이와 더불어 올해에는 '아동미술큰잔치'를 개최해 종단적으로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어린이포교를 위한 토대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각지에서 온 힌두교도들이 성스러운 강 갠지스로 몰려와 갠지스 강변에서 밤마다 불을 밝혀 놓고 의식을 벌이고 있다.

"印 힌두교도 10만명 불교로 개종"

카스트제도 따른 차별과 냉대 벗어나는 탈출구

최근 인도에서 10만여명의 힌두교도가 불교로 개종했다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인터넷판이 최근 보도했다.

이들의 대부분은 힌두교도 가운데 최하위 계급인 불가촉천민. 개종하는 이유는 수천년이 지나도록 근절되지 않고 있는 사회적인 차별과 냉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다.

인도에서는 요즘 들어 불가촉천민 출신으로 초대 법무장관에 올랐던 B.R. 암베드카르의 불교도 개종 50주년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개종 행사가 벌어지고 있다.

지난 14일 동북부 지역의 나구푸르에서 열리는 '세계 종교 자유의 날' 행사에도 수십만명의 불가촉천민들이 참석하였다. 인도에서 개종 문제는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안이다.

힌두 민족주의 정당으로 제1야당인 인도국민당(BJP)은 올해 초에 자신들이 집권하고 있는 라자스탄과 마드야 프라데시주에서 개종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부 허가를 받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사실상의 개종 금지령을 내린 셈이다.

하지만 불가촉 천민들이 힌두 사회에서 여전히 직면하고 있는 억압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개종뿐이다. 인도 헌법은 카스트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카스트에 따른 차별과 냉대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농촌에서는 천민들이 마을 우물을 함께 사용할 수 없고 별도의 그릇을 사용하는 음식점도 쉽게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천민들과 그릇을 함께 쓰면 "오염된다"고 생각하기 때문.

지난 2004년 12월 쓰나미에 난타당했던 타밀나두주의 난민촌에서조차 천민들은 식수를 따로 사용했을 정도였다. 대학에서는 자신들보다 좋은 성적을 받았다는 이유로 상위 카스트가 천민들을 폭행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인도에서 천민 출신으로 국가 지도자가 된 대표적인 인물로는 암베드 카르와 지난 1997년부터 5년간 대통령을 지낸 코체릴 라만 나라야난 등이 있다.

하지만 이 2명 모두 외국인과 결혼했다는 사실은 인도에서 카스트의 벽이 얼마나 두터운 지를 대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정스님 "한미FTA 끝까지 막아내야"

가을 정기법회서 정부정책 강력 비판

◇법정 스님

"농업은 기초산업이자 생명산업입니다. 이 시대 농업을 말살하려는 한미 FTA 협상을 끝까지 막아내야 합니다."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는 법정(法頂) 스님이 정부가 추진 중인 한미FTA 협상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법정스님은 10월 15일 서울 성북동 길상사에서 신도 2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가을 정기법회에서 "한미 FTA 협상은 단순한 통상협상이 아닌 사회전환 프로그램"이라면서 "지금 이 땅의 생명산업이 큰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스님은 "우리의 대외무역 의존도는 70% 이상으로 미국이나 일본의 3배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한미 FTA를 체결하는 것은 말이 '자유무역'이지 실상은 '강자의 보호주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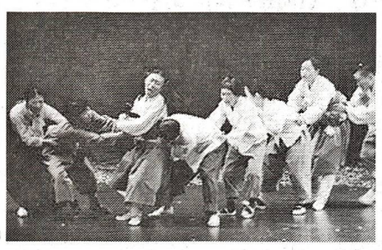
스님은 "FTA가 체결되면 고위 공무원, 재벌언론사 등 몇몇은 이익을 보겠지만 대다수 서민들, 특히 토지에 기반해 살아가는 농민들은 큰 어려움에 부딪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님은 또 "우리 나라 전국토지의 84%가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관리하는 땅"이라며 "농업은 한 나라의 경제산업이자 생명산업"이라고 강조했다.

법회 서두에서 법정스님은 서두를 통해 농사 짓는 것을 일종의 선(禪) 수행으로 여겨온 중국과 우리나라 선종의 전통을 소개한 뒤 "농사는 일차적으로 식량자급을 위한 것이나, 한 걸음 나아가 생명을 움 틔우고 자연을 익히게 하는 훌륭한 가르침"이라며 농사의 미덕과 소중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오세암' 뮤지컬로 공연

12월 말까지, 나루아트센터에서



◇관세음보살의 자애로운 미소가 잘 어우러진 오세암 뮤지컬

극단 예일은 뮤지컬 오세암을 제작하여 지난 10월 16일부터 시작하여 12월 31일까지 나루아트센터에서 공연한다.

아동문학가 고 정채봉씨의 동화 '오세암'은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관세음보살의 자애로운 미소가 잘 어우러진 동화. 이미 영화와 애니메이션으로 내용이 잘 알려져 있다.

원작동화는 1983년에 첫 발간돼서 스테디셀러의 반열에 올랐고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영화는 "앙시 애니 페스티벌"의 경쟁부분이 진출 대상을 수상했으며 2003년 문화관광부 선정 "좋은 영화"에 오르기도 했다.

다섯 살배기 길손이와 앞 못 보는 누나 감이의 이야기를 춤과 노래와 음악으로 풀어낸 작품으로 가진 것 없어도 서로 의지하며 고달픔을 이겨내는 남매의 모습을 통해 자연과 세상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맑은 이야기이다.

정보 다이제스트

▶우유와 식초로 불면증 없애기

우유에 식초를 타서 마시면 불면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

우유에는 뇌를 수면으로 이끄는 성분이 들어있고, 식초는 신경을 안정시키고 원기까지 회복시켜 함께 마시면 아주 좋다.

▶기름이 튀는 것을 방지하려면

야채와 고기를 볶을 때, 불이 너무 세면 기름이 튀기 쉽다.

기름이 심하게 튀면 부엌주변이 지저분하게 되고, 손이나 얼굴에 화상을 입을 수도 있다.

그래서 기름에 볶을 때에는 야채와 고기를 넣기 전에 먼저 소금 한줌을 넣는다. 이 방법으로 요리할 경우에 양념은 약간 적을 정도로 해야 간이 맞는다.

▶달걀 안깨지게 삶으려면?

달걀을 찌다보면 때로 껍질이 터져 달걀 속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경우가 있다. 달걀 껍질이 터지는 것은 찌는 과정에서 달걀이 그릇에 부딪히거나 아니면 냉장고 속에 넣어뒀던 달걀을 갑자기 뜨거운 물 속에 넣을 때 껍질이 팽창하기 때문이다.

이 때 끓는 물에다 소금을 약간 넣거나 식초를 서너방울 떨어뜨리면 달걀이 깨져 속이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고 그대로 잘 쪄진다

▶국이 오랫동안 식지 않게 하려면

손님을 초대했을 경우에는 국을 자주 데워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럴 때에는 국을 끓일 때 녹말가루를 조금 풀면 국이 훨씬 오랫동안 식지 않는다. 왜냐하면 녹말가루로 인하여 국물이 끓는 온도자체가 높아져 있는데다 또 그릇에 국을 퍼놓아도 그릇 안에서 대류 작용이 잘 일어날 수 없어서 국이 잘 식지 않기 때문이다.

▶김을 맛있고 간편하게 굽는 방법

김을 두 장씩 겹쳐서 살짝 구우면 향기가 밖으로 달아나지 않아 더욱 맛있게 구울 수 있다. 한 장만 구울 때는 접어서 구우면 좋다.

또한 많은 양의 김을 구을 때는 먼저 기름을 바르고 소금뿌린 김을 도시락 같은 그릇에 적당한 크기로 잘라 차곡차곡 쌓아 뚜껑을 덮고 은은한 불에 올려놓는다. 2~3분쯤 지나서 뚜껑을 열어보면 그 많은 김이 노릇노릇 알맞게 구워져 있을 것이다.

서 초 실 버 의 원

1995년 서울에서 최초로 개원한 치매/중풍 전문요양병원으로 2003년부터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의료진과 간호진이 다년간 축적된 경험과 기술 및 따뜻한 정성으로 어르신들을 잘 모시겠습니다.

전문진료과목

- 치 매
- 뇌졸중
- 노인성 우울증

진 료 시 간

평일(토) : 09:00~18:00

일요일 & 공휴일 : 예약진료

응급 / 입원환자 제외

최고의 진료 및 시스템 온라인 상담 : www.elderlynp.co.kr
전화상담 : 02-575-1850 Fax : 02-575-8275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402-3번지

김장규 서초실버의원 원장

주요경력

1991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1996년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 전문의 취득
경기도 연천군 보건의료원 정신과과장
2000년 전임의과정 수료(서울대학교병원, 노인정신의학 전공)
2001년 석사학위 취득(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호주 멜버른대학 연수
(iMHLP:International Mental Health Leadership Program)
2002년 박사학위과정 수료(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정신병원 및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정신과 과장
전국 정신요양시설 평가위원회 위원

전통사찰 문화탐방

해탈의 감로수 흐르는 구례 천은사

지리산 가는 길은 늘 마음이 조급하고 설렌다.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보고픔이 조급증을 더해 주는 것도 있지만 사실 몰려드는 인파 때문에 서두르지 않고는 해거름 돌아오는 길이 너무 고달파서 종종 걸음을 해야 한다.

화려하지 않은 가을의 서사시! 올 뱀사골 가을은 바로 그런 곳이었다.

용(龍)이 되지 못한 이무기의 서글픈 죽음이 전해져 온다는 뱀사골의 전설 위엔 아직껏 아물지 않은 슬픈 역사가 붉은빛으로 드리워져 있다. 토벌군이나 빨치산이나 다 같은 핏줄들이기에 이들의 혼은 이데올로기의 처절한 희생물이 되어 이곳 뱀사골 아니 지리산 전역에 해마다 가을이 되면 붉은꽃으로 피어난다.

샘물마저 숨었다는 전설의 산사(山寺) 지리산 천은사. 고요함이 더해 적막 속에 숨어 있는 천은사는 울창한 숲에 가려 일부러 찾지 않고서는 지나치기 십상이다.

오래전에 원교 이광사가 쓴 일필휘지 '泉隱寺'의 일주문이 인상적이고 일주문을 지나면 종석대에서 발원한 천은사 계곡 물줄기가 천은지로 모이기 직전의 계류위에 있는 수홍루를 적시는 계곡과 호수가 짙푸르다 이름하여 한 폭의 동양화다.

수홍루는 계곡을 건너 절간으로 들어가는 무지개다리 위에 만들어진 정자다. 천은지에 비친 수홍루 물그림자는 가히 절경으로 여름이면 찬바람이 절로 일어 피서지로 그만이다. 수홍루를 건너면 달고 시원한 샘물로 목을 축일 수 있다. 이른바 감로수(甘露水)다. 바위를 다듬어서 만든 홈통에 고인 맑은 물 감로수는 천은사의 상징이기도 하다.

천은사의 최대 자랑거리가 감로천 샘물인데 원래 감로수와는 거리가 있는 듯하다.

하지만 천은사의 샘물에 얽힌 사연을 음미하며 가만히 목을 적셔 볼일이다

여기서 가파른 계단을 올라서면 비로소 법당이다. 비록 오래된 건축물이 아니지만 천은사는 그런대로 오래된 절의 품위를 보여주고 있다. 새로 지을 때 옛 모습을 살리기 위해 무진애를 쓴 정성의 승화물이리라.

수홍루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보며 사바를 건넌 사람들. 절 마당을 거닐며 살아온 세월들을 떠올려 보는 것도 속세 사람들에겐 참뜻이 있지 않을까.

천은사는 화엄사, 쌍계사와 함께 지리산의 3대 명찰로 손꼽힌다. 지리산 서남쪽 기슭으로 지세가 포근하고 양명하다. 사찰기록에는 인도 승려였던 덕운(德雲)이 신라 흥덕왕 3년(828)에 창건한 것으로 되어 있다. 특히 이곳의 샘물은 만병에 특효라고 하여 처음에는 감로사(甘露寺)라고 불렀다.

그 뒤 875년(헌강왕 1년)에 도선국사(道詵國師)가 중건하였고, 고려 충렬왕 때에는 남방제일선찰(南方第一禪刹)로 승격되었으나 임진왜란 때 완전히 불에 타고 말았다. 1678년(조선 숙종 4)에 중건하면서 천은사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름을 바꾼데는 그만한 까닭이 있다. 중건 당시 감로사의 샘가에 큰 구렁이가 자주 나타나 놀래게 하자 한 승려가 이를 잡아 죽였더니 그 뒤부터는 물이 솟아나지 않았고 샘이 숨었다 해서 천은사로 개명하였다.('절 식구들'은 살생을 금하고 있는 스님이 어떻게 뱀을 죽였겠느냐면서 한사코 스님이 죽인 게 아니라 공사장 인부가 죽였다고 말을 고친다)

그런데 절 이름을 바꾼 뒤 이상하게도 이 사찰에는 원인 모를 불이 자주 나 편할 날이 없었다. 재화(災禍)가 끊이지 않자 그것은 절의 수기(水氣)를 지켜주는 뱀을 죽였기 때문이라며 두려워하였다. 그때 조선 4대 명필의 한 사람인 이광사(李匡師)가 수체(水體)로 물흐르듯 '智異山 泉隱寺'라는 글씨를 써서 수기를 불어넣은 현판을 일주문에 걸게 한 뒤로는 다시 불이 나지 않았다고 한다.

현판글씨를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세로로 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도 새벽녘 고요한 시간에 일주문에 귀를 기울이면 현판글씨에서 신운(神韻)의 물소리가 연연히 들린다고 전해온다.

극락보전 뒤로 계단을 올라가면 여러 전각 중 가운데 있는 전각이 관음전이다. 대승불교의 수많은 불·보살 가운데 중생구제를 위한 대자대비의 원력으로 대중들에게 가장 친근한 보살인 관세음보살을 모신 전각이 관음전인데, 사찰에 따라서는 원통전, 대비전, 보타전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관음전에는 관세음보살과 더불어 그 협시로서 남순동자와 해상용왕을 모시며 그 뒤에 천수천안관세음보살도나 수월관음도 혹은 아미타 후불탱화를 봉안한다

관세음보살은 대체로 손에 연꽃을 들고 있다. 연꽃은 본래 중생이 갖추고 있는 불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 꽃이 완전히 피어난 것은 불성이 드러난 성불을 의미하고 아직 덜 핀 봉오리는 불성이 번뇌에 물들지 않은 것을 상징한다.십일면의 얼굴을 지닌 관세음보살은 자비상·진노상·대폭소상등 중생을 제도할 때마다 여러형태의 얼굴을 말한다.

천은사 뜰에 들어서면 들리는 자연으로부터의 법문, 그것은 나무잎새 스치는 바람소리, 계곡의 물소리, 호수에 떠있는 물새떼의 울음소리, 가슴을 시원케 하는 소리들이다. 구태여 향을 지피고 경을 읊지 않아도 누구나 맑아지는 정신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정신을 맑아지게 한다는 천은사의 감로수는 아마도 세속의 때가 묻지 않은 청정의 바람과 물일지도 모른다. 혹 천은사를 찾는다면 감로수가 사라진 이유를 따져 볼 일이다. 자연을 무시하고 마구 살생을 일삼은 인간의 무지가 감로수를 사라지게 한 것은 아닌지...!

이달의 사찰음식 ⑪

▶김치찌개

재료

신김치 1포기, 산사 죽염된장 1/2큰술, 소금

만드는 법

1.신김치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냄비에 물을 붓고 끓인다.

2. 한소끔 끓었을 때 된장을 약간만 넣고 소금으로 간을 한다.

3. 김치가 푹 익을 때까지 끓인다.

포인트

1. 김치는 이미 양념이 다 되어 있는 음식이므로 다른 양념을 넣으면 김치찌개의 참맛을 잃을 수도 있다.

2. 기호에 따라 두부를 넣어 먹어도 좋다.

3. 된장을 넣는 것은 김치찌개의 신맛을 약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4. 찌개를 끓일 때 된장 대신 식용유 한 큰술을 넣고 끓이면 맛이 순하고 고소하다

▶더덕구이

재료

더덕 200g, 산사고추장 2큰술, 물엿 1큰술, 진간장 1큰술, 참기름 1큰술, 통깨 1작은술

만드는 법

1. 더덕은 껍질을 까서 반으로 가른 다음 마른 수건위에 올려놓고 방망이로 두드려서 부드럽게 만든다.

2. 고추장에 진간장을 약간만 붓고 물엿, 참기름, 통깨를 넣고 양념장을 만든다.

3. 더덕에 양념장을 발라 석쇠에 살짝 구워서 상에 낸다. (프라이팬에 구워도 된다.)

포인트

1. 더덕을 타지 않게 구우려면 더덕에 양념장을 바르기 전에 초벌로 식용유를 넣어 살짝 구운 다음 양념을 발라 재빨리 구워내면 좋다.

▶ 우엉탕

재료

우엉(중간 크기) 1개, 표고 5장, 두부 1/2모, 붉은고추 1개, 소금 1/2큰술, 산사간장 1/2큰술, 들깨가루 반 컵

만드는 법

1.우엉은 씻어 껍질을 벗겨서 4cm 길이로 토막내어 3~4cm 두께로 썬다.

썬 우엉은 맹물에 식초를 약간 탄 물에 잠시 담가둔다.

2. 표고는 미리 불려서 손을 먹기 좋은 크기로 찢어 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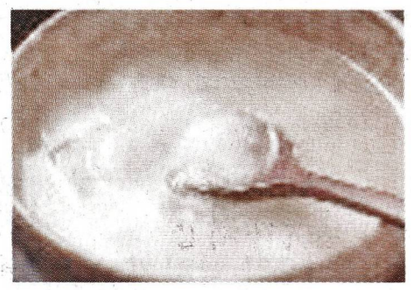
3. 두부를 1cm 두께로 썰어 소금을 약간 뿌려서 프라이팬에 노릇노릇하게 구워 식으면 한 입에 먹기 좋은 크기로 썬다.

4. 냄비를 달구어 들기름을 두르고 표고와 우엉을 볶는다. 센 불에 볶는다. (물기가 없으면 물을 조금씩 넣으면서 볶는다.)

5. 우엉이 거의 다 익으면 표고버섯물을 자작하게 붓고 중간 불에서 끓인다.

6. 한소끔 끓으면 들깨를 걸려서 Ⅵ에 넣고 어느 정도 끓으면 산사간장과 소금으로 간을 하고 마지막으로 두부와 붉은 고추를 넣는다.

▶무국



재료

무(작은 것) 1/3개, 참기름 1큰술, 산사 간장 1/2큰술, 소금 1/2큰술

만드는 법

1.무는 깨끗이 껍질을 깍아 준비한다.

2. 준비해 놓은 무를 칼로 저민다.

3. 저며 놓은 무를 냄비에 넣고 참기름을 넣어서 볶는다.

4. 무와 참기름이 어울릴 때까지 볶다가 물을 붓고 산사 간장으로 색을 낸다.

5. 무가 충분히 익을 때까지 약한 불에서 서서히 끓인다.

6. 소금으로 간을 해서 한소끔만 더 끓이면 된다.

한마리 나비의 날개짓으로
지구반대편에 태풍을 일으킨다는
나비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눈에 띄지 않는
총지종보사의 작은 몸짓이
총지종의 역사를 만듭니다.

총지종보사 :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전화 : 552-1083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는 하나"

서울경인 교구 합창단 단합대회

◇서울경인합창단이 전남 구례 지리산 노고단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서울경인교구 합창단은 지난 10월 24일 전남 구례 천은사와 지리산을 등반하며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는 하나"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 주었다.

서울경인교구 합창단은 매년 10월 단합대회를 개최하여 단원들의 화합을 다져왔으며, 단합된 모습으로 아름다운 멜로디를 연출하고 있다.

합창단 단원은 "매주 수요일마다 찬불가를 연습하기 위해 모이지만 모두가 바쁜 일정으로 연습이 끝나자마자 집으로 돌아가기에 여념이 없어 서로 간에 깊은 대화의 정을 나누지 못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서로 서로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보람되었다"며 "이러한 행사를 자주 개최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합창단에 가입하여 찬불가를 부름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찾고, 보람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경인교구 합창단은 10여 년 동안 총지종의 각종행사에 참가하여 의식곡과 찬불가 음성공양을 하고 있으며, 교도들의 경조사에도 빠지지 않고 참가하여 즐거움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있다. 특히 전국 연합합창단에 가입하여 활동함으로써 총지종을 포교하고 있다.

서울경인교구 합창단 조직개편

지휘자 김양희, 반주자 이문선 보살

김 양 희 보살

이 문 선 보살

총지종 서울경인교구 합창단은 지난 10월 중순부터 지휘자에 김양희, 반주자에 이문선 보살을 새로이 영입하고 합창단의 발전을 위한 터전을 마련하였다.

지휘자 김양희 보살은 추계예술대학 성악과를 졸업하고, 음악학원 원장, LMB싱어스 불교 중창단 단원, 각 사찰 지휘, 산사음악회 연주, 불교 오페라단인 바라오페라 단원, 군법당 봉사활동, 진각종 청년회 노래동아리 지휘 등 불교계에서 다양하고 화려한 경력을 소유하고 있는 실력자이다.

김양희 보살은 작곡가로 등단하여 창작활동을 하고 있으며 "노래를 배우는 개념에서 곡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표현하고, 발성부분을 전문화, 다양한 찬불가 선곡,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실력을 바탕으로 합창단의 발전에 기여하겠다"며 "합창단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종단적으로 연합합창제를 마련하여 배운 노래 실력을 발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합창단 단원들에게는 "아무리 바쁜 일정이 있더라도 연습하는 시간에 절대 결석을 하지 말고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가졌던 관념과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자세로 생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만사와 세상

비판이 약이라면 칭찬은 음식

붕붕붕 아주 작은 자동차
꼬마 자동차가 나왔다
붕붕붕 꽃향기를 맡으면
힘이 솟는 꼬마자동차

갑자기 이 노랫말이 생각나는 것은 왜 일까.

대한불교청년회 회장선거도 끝이 났고, 종회 의원 선거도 끝이 났다. 선거란 정치적이던 종교적이던 '부정선거' '금권선거' '나눠 먹기식 선거'등의 꼬리를 달고 다니는 것 같다. 선거의 끝자락에는 마치 태풍이 지나간 바닷가처럼, 당선자는 당선자대로 낙선자는 낙선자대로 허허로운 바람이 일게 마련이다.

1893년 시카고에서 개최된 세계종교회의에서 전 세계에 인도 사상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던 사람이 인도의 위대한 사상가 비베카난다이다. 비베카난다가 살았던 19세기 후반에는 인도의 종교단체들이 사회개혁 운동을 주도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비베카난다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

'소위 사회적 개혁이라는 것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개혁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개혁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을 바로 세워야합니다. 그리고 한동안 다른 사람들의 일에 관여하는 일을 중단해야 합니다. 수단이 완전하면 목적은 저절로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선하고 순수하다면 세상은 선하고 순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결과라면 우리는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 자신을 정화합시다. 먼저 우리 자신을 완전하게 합시다.'

그는 사회개혁이 구호를 통해 이루어지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수행이 선행되어야 이루어지는 것이며, 종교의 역할은 직접 나서서 사회를 개혁하는데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종교인과 수행자 그리고 개인 각자가 스스로 정화되어 종교 안에서 참된 자아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신선한 공기를 내 뿜을 때, 사회는 새로운 산소를 공급받아 개혁된다는 것이다.

종교의 역할이 이러하듯이 비판의 역할을 맡은 단체들 역시 마찬가지 일 것이다. 종교를 개인의 욕심이나 정치적 야망을 표출하는 통로로 삼는 것은 참된 종교의 역할을 매장시키는 것이다. 또한 비판의 역할을 맡은 단체들도 비판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거나, 자신들의 생각에 집착하여 비판을 위한 비판을 일삼는다면, 이것 역시 비판 기관이 맡고 있는 중대한 역할을 망가뜨리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잘못된 단체, 잘못된 개인을 비판하기에 앞서, 자신을 향기롭게 가꾸고, 그렇게 가꾸어진 개인의 향기를 세상으로 내 보내야 할 때가 아닐까.

어린 시절에 읽은 동화처럼 길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벗길 수 있는 것은 거센 바람이 아니라 따사로운 햇살이라는 것을 생각해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 날카로운 비판으로 사회가 바뀌고, 종교단체가 바뀌고, 종교인들의 태도가 바뀌고, 사회의 지도자들이 바뀌기를 바라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비판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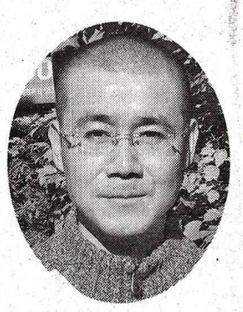
잘못된 것은 날카로운 시선으로 지적하고 비판하되 더불어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 알리는 일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언론 매체들이 아름다운 모습은 접어두고, 냄새나는 일과 잘못된 일로만 지면을 가득 채운다면 신선한 공기가 들어올 창문을 닫아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약이 아니라 음식이다. 비판이 약이라면 칭찬은 음식이다. 고열이 날 때 해열제를 먹으니 열이 내리고 몸이 건강해졌다고 해서, 평생 해열제를 먹고 살 수는 없는 것이다. '꼬마 자동차 붕붕'이 달릴 수 있는 힘은 꽃향기이다. 꽃향기를 맡으면 힘이 나는 '꼬마자동차 붕붕'처럼, 세상의 아름다운 향기를 맡고 싶다. 더불어 나도 세상에 힘을 공급할 꽃향기가 되고 싶다.

〈불교포커스, 사라와스티의 속삭임〉중에서

신행체험 35

국제포교사 한국문화 체험에 다녀와서



장 동 욱 교무
〈통리원〉

국제포교사 한국문화 체험은 해외 포교의 최일선에서 포교하고 있는 해외 거주 국제포교사와 앞으로 해외 파견 예정인 국제포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나라 전통 문화의 맥을 잇고 있는 중요 불교사찰과 지역의 유·무형 문화재를 탐방함으로서 한국문화의 다양한 특징을 이해하고 사찰 탐방 및 문화체험 실습을 통해 우리의 불교문화를 새롭게 돌아봄으로서 국제포교를 함에 있어 더욱더 알차고 다양한 한국전통 문화와 한국불교를 알릴 수 있는 지식습득의 장입니다. 또한 해외에 상주하는 국제포교사와 국내에서 해외포교를 준비하고 있는 국제포교사의 교류를 통한 상호유대와 정보공유의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국제포교사 대회는 해인사, 불국사, 통도사 등에서 총지종, 조계종, 진각종, 원불교의 국제포교사 80여명이 모여 함께 보고, 함께 듣고,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고 국제포교사들의 포교 경험과 지식을 배움으로서 포교의 방향과 방법을 습득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총지종에서는 벽룡사 주교이신 원당 정사님과 유호걸교무와 함께 참석하여 첫날 법보종찰인 해인사에 도착하여 해인사 경내 설명과 팔만대장경 참배를 하였습니다.

팔만대장경은 고려시대 몽고군이 침입했을때 부처님의 힘을 빌어 이를 물리치려는 국가와 백성들의 염원을 담아 만들어졌으며, 현재 국보 제32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1995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우리민족의 문화유산일 뿐 아니라 세계인류의 문화재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팔만대장경 설명을 들은 후 팔만대장경 중 반야심경부분을 인경하는 체험을 하고 숙소가 있는 경주로 왔습니다.

둘째날은 새벽4시에 일어나 석굴암을 참배하고 해돋이를 보려했으나 날씨가 좋지 않아 아쉽지만 다음 일정지인 불국사로 향했습니다.

불국사는 신라 경덕왕 10년(751년)에 당시 재상이던 김대성이 짓기 시작하여 혜공왕 10년(774년)에 완성한 사찰로 통일신라시대에 만들어진 다보탑과 석가탑으로 불리는 3층 석탑, 자하문으로 오르는 청운·백운교, 극락전으로 오르는 연화·칠보교가 국보로 지정, 보존되고 있어 당시 신라 사람들의 돌을 다루는 훌륭한 솜씨를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불국사 참배 후 울산으로 이동하여 현대중공업공장을 견학하고 통도사로 이동하였습니다.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셨다 하여 불보사찰이라 불리는 통도사는 서기643년 신라의 대표적인 고승인 지장율사에 의해 창건되었으며 절 이름은 '만법을 통달하여 중생을 제도하라'의 머리글자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통도사에서 부처님 진신사리탑 참배와 탑돌이를 한 후 다도체험을 위해 통도사 말사인 서운암에 도착하여 대학 4학년때 종교학개론를 강의하셨던 선생님이신 효범 주지스님을 만나게 되어 인연이란 이런 것이구나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날은 경주박물관과 경주유적지를 관람하고 짧지않은 2박3일의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2박3일 동안 국제포교사 한국문화 체험을 하면서 포교에 관한 방법적 접근법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해외 포교의 경우 외국인들이나 교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한국어 어학당, 다도, 참선등 한국 문화 컨텐츠를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은 국내 포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문화컨텐츠의 활용으로 누구나 흥미를 가지고 찾아올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총지종은 그런 문화컨텐츠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할 문제입니다.

특정 소수를 위한 포교가 아닌 다수의 사람을 위한 포교라면 다수인들이 공감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총지종만의 문화컨텐츠를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고 중요한 일입니다.

포교는 수동적인 활동이 아닌 적극적 활동입니다. 부처님께서 전도선언에서 하셨던것처럼 일체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총지종도 적극적으로 전도에 나서야 합니다.

총지종만의 문화콘텐츠 개발 필요

폭력없는 세상 만들기 프로젝트

성폭력 · 성매매 만화 전시회및 현장 상담

○「1366」은 가정폭력, 성폭력 등 위기상황에 처한 여성을 상담하기 위해 여성부에서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여성긴급전화입니다.
○「1366」에서는 긴급보호, 의료적.법적 정보지원 및 관련기관과의 연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366」이란 '위기에 처한 여성에게 1년 365일에 하루 더 서비스르 받도록 한다' 즉, 충분하고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366

실천하지 않는 수행은 공허한 메아리

형형색색 아름다운 단풍들이 물결치고, 오곡의 과일이 출렁이는 가을들녘에 농부들의 손놀림이 바쁘게 움직인다.

흐르는 세월따라 자연의 풍경도 울긋불긋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있는 가운데 독야청청 오로지 일념정진으로 옴마니반메훔 진언으로 수행하고 있는 실보사 김임이 보살을 찾아가본다.

경제와 병고해탈위해 입교

10월의 풍성한 모습처럼 실보사를 찾아가는 발걸음은 설레임으로 가득하다. 오랜 세월동안 수행하여 오신 진언행자의 수행담을 듣기 위해 찾아가는 길이기에 더욱더 반가움이 앞서는 것일까? 실보사 서원당에서 수행하는 김임이 보살은 노령의 육신에도 불구하고 곧은 허리에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이 베어 나온다.

그동안 할 이야기가 많았던 탓일까? 인터뷰를 시작하자마자 마치 많이 준비해온 것처럼 말문이 부드럽게 나온다.

김임이 보살이 처음 입교하게 된 것은 총기 5년, 그러니까 30 여 년 전이다. 그 당시 가정형편은 각자님이 사업에 실패하여 빈털터리가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보살님도 병을 얻어 거동도 불편한 상황이었다. 6남매의 아이들을 데리고 살집을 찾아간 곳은 산중턱의 성냥개비 같은 허름한 집이었다. 삶에 대한 절망의 시기인 그 당시 채소가게 주인이 '성화사란 절이 있는데 그 곳에 가면 경제도 해탈되고 병도 고칠 수 있다."고 해서 마치 실날같은 희망의 불씨를 안고 찾아가게 된 곳이 성화사이다. 그 당시에는 성화사가 아니라 이화서원당이었다. 그 후 스승님의 말씀이 곧 진리임을 믿고 용맹정진하였다.

의심없이 믿고 용맹정진할 때 해탈

처음 성화사에 갔을 때 손영우 정사님이 계셨다. 정사님은 반갑게 맞아 주면서 '굳은 신심을 가지고 지심으로 불공하면 반드시 해탈을 이루게 됩니다.'라고 말씀하셔서 스승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며 죽고 사는 마지막 선택이라 생각하고 서원당에서 하루에 5시간 이상씩 매일 불공을 하였다. 아픈 몸을 이끌고 서원당에 나와 불공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자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다. 가정형편도 풀리고, 아팠던 몸도 완쾌되었다. 모든 것이 신기할 따름이었다. 일이 실타래 풀리듯 술술 풀리는 것이었다.

경제도 어느 정도 풀리고 몸도 완쾌되다 보니 마음에 번뇌가 들기 시작했다. 4년 정도 지난 시기였다. 모든 일에 고비가 있듯이 그렇게 재미있던 염송이 하기 싫었다. 마음에 잡념이 생기고 모든 것이 귀찮다고 느꼈다. 마침! 정각사에 계시던 정각원 스승님이 성화사에 방문하셨다. 정각원 스승님께 '스승님 정말 염송하기가 싫습니다.'라고 말했더니 정각원 스승님께서는 두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보살아! 용맹정진만이 해탈을 이룰 수 있다네. 인욕하며 열심히 불공하게나' 하시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마음을 다잡고 힘들 때마다 정각원 스승님의 말씀을 상기하며 하루 7시간 정진을 밥먹듯이 하였다.

성화사에서 수행한 후 울산으로 이사 왔을 때 성화사 보살님들 30여명이 관광버스를 타고 가정방문을 왔는데 성화사에서 불공해서 경제적, 육체적으로 해탈한 모범가정이라 많은 보살들이 참석하였다고 한다.

수행은 말없는 실천과 자신을 살피는 것

김임이 보살 자녀 6남매는 모두 총지종에서 열심히 용맹정진하고 있다. 총지종에서 불공한 공덕을 입었기에 그 은혜갚기 위해 각자님이 더욱더 열심히 불공하시면서 자녀들 모두 불공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이끌어 주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불공하는 모습을 보며 거부반응 없이 부모님들을 따라 절에 다니게 되었고 며느리들도 절에 나가 불공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모든 가족들이 총지종에서 수행한 덕분에 각자님이 열반했을 때 49재를 모시는 동안 주일마다 지내는 49재불공에 모든 가족들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여 가족애을 보여주어 모든 것이 부처님의 공덕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모든 가족들이 불공정진 할 수 있었던 것은 보살님의 남다른 수행덕분이다. 보살님은 수행하시면서 '절대 남의 모습을 보며 수행하지 마라. 자신을 보며 수행하고 절대 말을 많이 하지 마라.'는 수행철학과 수행은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실천하지 않는 수행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뿐, 수행이라 할 수 없다며 실천을 강조하신다. 이러한 수행덕분에 가족들은 어머님의 모습을 본받아 수행을 하고 있으며, 성화사나 실보사에서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제도하기도 하였다.

의심없는 믿음과 용맹정진만이 해탈의 지름길

어려운 환경일수록 더욱더 용맹정진

인고의 세월을 용맹정진으로 극복한 탓일까? 김임이 보살의 모습은 78세 노령의 육체이지만 건강하고 자비스런 모습이 베어 나온다. 김임이 보살은 병고와 싸우면서 생사의 고난을 겪으셨다. 젊은 시절 병고와 싸우면서 주변 사람들은 50세를 살면 많이 산다고 말할 정도로 단명을 예측하였다.

이러한 단명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용맹정진뿐이었다고 한다. 그저 스승님들의 말씀이 진리라 믿고 스승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실천하였다. 그저 용맹정진!, 용맹정진 뿐이었다.

이러한 용맹정진의 힘에 의해 인연따라 다가오는 조상영식을 천도하고 마장을 미연에 예방하였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더라도 먹어봐야 제 맛을 알 수 있듯이 용맹정진하지 않고 불공의 의미를 알 수 없다고 한다. 과학문명이 발달된 요즈음 젊은 사람들은 그저 편안함만을 추구하다보니 아무리 노력해도 인력으로 풀리지 않는 일들이 많다. 인력으로 풀리지 않는 일들을 억지로 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복잡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부처님전에 앉아 모든 것을 풀어놓고 용맹정진해야 하지만 용맹정진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다고 한다.

우리 총지종같이 좋은 법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수행하였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보지만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흐른 탓일까? 젊은 사람들이 용맹정진하는 모습을 보기가 힘들다.

용맹정진만 하면 부처님께서 다 알아서 해결해 주는데 왜 모르는지?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한다.

탐욕을 버릴 때 지혜증득

사람들은 처음 불공할 때 부처님께 무엇인가를 바라는 마음에서 불공을 하게 된다. 몇 개월 동안 불공해도 자신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퇴전하는 보살들이 많다.

그리고 보살들을 보면 바라는 것이 왜 그리 많은지도 모르겠다. 한 가지 소원도 성취하기 힘든데 수 십 가지 소원을 부처님께서 어떻게 들어 주실까?

김임이 보살이 해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의심없는 믿음과 용맹정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번뇌 망상의 잡된 마음을 버리는 수행을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모든 일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무상, 무념의 정진중에 서광처럼 갑자기 떠오르는 영감을 깨닫고 법문의 방편을 세웠기 때문이다.

무엇인가를 바라는 마음보다 부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앞설 때 생활이 즐겁고 삶의 활력소를 얻게 된다. 이제는 부처님께 무엇을 바라는 마음보다 부처님의 은혜갚기 위해 용맹정진한다. 고 한다.

부처님의 크나큰 공덕은 '내가 더 가져야지, 내가 더 편안해야지 하는 마음보다 내가 남을 위해 무엇을 할까'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주어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임이 보살이 바라는 것은 '모든 보살들이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의심없는 믿음을 가지고 스승님들의 말씀을 진리라 생각하며 따르고 실천하고 용맹정진해서 해탈을 이루기 바라는 마음뿐이라고 한다.

진언행자 가족을 찾습니다

총지종 진언행자로 모범적인 수행을 하고 있는 진언행자 가족을 총지종보사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02)552-1080, 지정 정사

중국의 보현도량 아미산 - 『금정(金頂)』의 4대 기관(奇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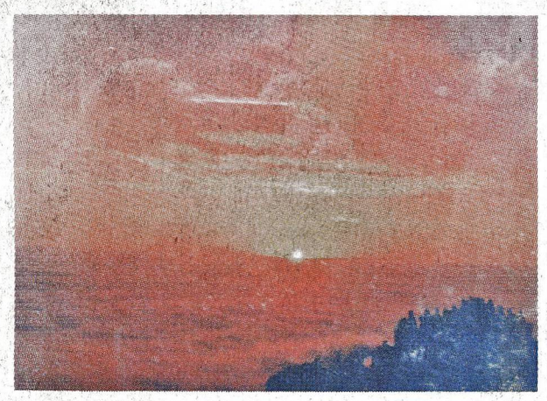
"불광(佛光) · 운해(雲海) · 일출(日出) · 성등(聖燈)"

- 불광(佛光) -

부처님의 광채가 계곡에서 비추어지는 것. 낮 2~4시 사이에 아미산 계곡에서 무지개 같은 둥근 광채가 선명하게 나타남. 그 광채을 보는 사람은 그 속에서 자신의 그림자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한다.

- 성등(聖燈) -

연등을 단 것처럼 깊은 밤 계곡 곳곳에서 불빛이 일어나는 성등(聖燈)이다. 성스러운 연등불빛이라 하여 성등(聖燈)이라 한다. 이를 만등(萬燈)이라고도 한다. 이 연등은 보현보살의 경배를 의미한다.



- 일출(日出) -

금정에서의 일출은 그야말로 장관이다. 흐린 날이 대부누이라 금정의 일출은 보기 어렵다. 중국 황산의 일출은 여기에 비할 바가 못된다.

- 운해(雲海) -

금정의 운해(雲海)는 말그대로 구름이 흡사 바다같다. 365일 중에 맑은 날이 60~70일 밖에 안되므로 일출과 운해는 거의 보기가 어렵다.